

충남도가 펼치는 어린이부터 대학생까지 100% 무상교육

신학기 충남도 무상교육 전면시행

도 교육·교복·급식 3대 무상교육

유·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전국 공립대학 최초 무상교육

충남도립대 신입생 전액 장학금

버스비 무료 지원사업 확대

4월부터 어린이·청소년 무료

대중교통 활성화·경제적 부담 ↓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긴장감 속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부터 대학생까지 전면 무상교육을 단행한다.

3월 새 학기를 맞아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남도의 미래인재 육성 교육정책이 펼쳐지는 것이다.

충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3대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오는 4월부터 만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시내·농어촌 버스 무료화 사업을 한다.

충남도는 무상교육, 무상교복, 무상급식 등 3대 무상교육을 펴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와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내 고등학교 전학년 대

상이다.

도내 소재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은 무상교복 혜택을 받는다. 중학교 무상교복은 1인당 30만 원의 현물(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복도 지원한다. 15개 전 시군이 1인당 30만 원의 현물(교복) 또는 현금을 지원한다.

무상급식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정책이다.

무엇보다 충남의 무상급식은 무농약·유기농 농산물을 사용하는 친환경 급식이다. 도내 친환경 우수 식

재료를 공급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은 물론, 농가 소득 증대 등을 실현한다.

도내 어린이집 유아 대상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을 정부표준보육료 수준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도 만 3~5세로 확대 지원한다.

충남도립대학교는 평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2학년도 신입생 전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 현재 인문계열 신입생의 1인당 등록금

은 106만 원, 자연·공학계열은 129만 원이다. 도는 2024학년도 전체 학생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대학 무상교육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4월부터는 도내 어린이와 청소년은 시내·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한다. 도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이어 만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버스비 무료화 정책을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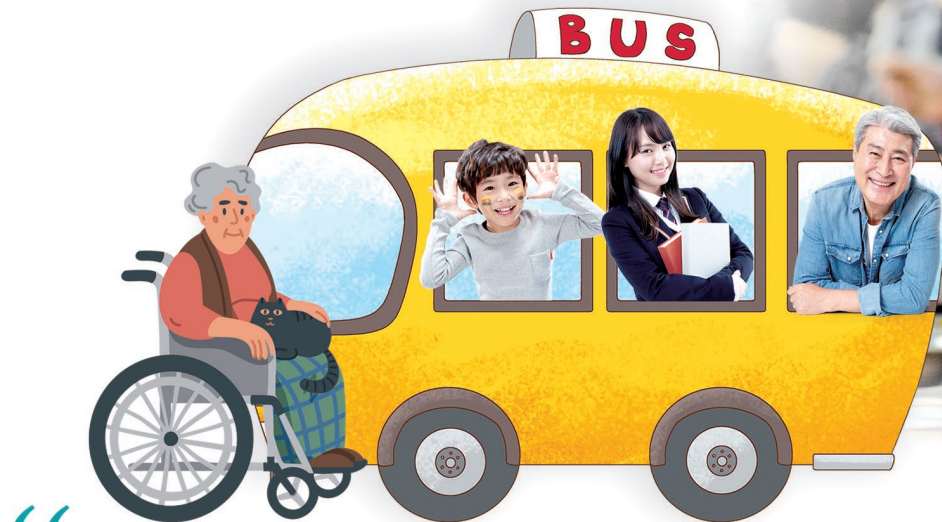
대상 인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26만 790명으로, 만 6~12세 어린이 14만 2682명, 만 13~18세 청소년 11만 8108

명 등이다. 만 5세 이하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보호자 동반 시 무료로 버스를 탑승하고 있다.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해 먼저 버스비를 지불한 뒤, 1일 3회 이용분에 한해 환급받는 방식이다.

도는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가 본격 시행되면 ▲가계 교통비 부담 완화 ▲버스 운수회사 재정지원 효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여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김정원 jwkim87@korea.kr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충남형 3대 무상교육 실현

무상교육 -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무상교복 - 1인당 30만 원 교복(현물) 지원

무상급식 - 유·초·중·고 대상 친환경 급식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 4월부터 시행

충남 어린이, 청소년 26만명 대상

기존 75세 이상 → 18세 이하 확대

*만 5세 이하 보호자 동반시 무료

충청사랑의 마음 전할 ‘충남 고향사랑 기부제’ 닷 올립니다

도 충남 고향사랑 준비단 출범

소멸위기 처한 고향 사랑운동

내년 1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고향에 기부하면 주민복지 사용

기부자에 특산물 등 답례품 지급

충남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충남 고향사랑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운영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에 기부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희망하는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

서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이 제공되며,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기부처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기부액 100%, 10만원 초과시에는 기부액의 16.5% 세액공

제를 받을 수 있다.

도는 2월 22일 ‘충남형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기반 구축 및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위해 이필영 행정부지사장 단장으로, 준비단을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준비단에는 문화·관광·농축수산 등 도 소속 19개 관련부서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홍보·마케팅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기획·홍보, 재정, 답례 등 3개 분과로 운영한다.

이중 답례분과는 도내 각 시군의 특산물, 관광코스 등을 하나로 결합해 제시할 수 있는 상품 꾸러미와 백제문화투어, K-순례길 개발 등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답례품 개발에

나선다.

충남도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국민과 출향민들에게 충남을 알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관광객원과 특산물 뿐만 아니라 기부자의 명예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답례품 발굴에 나선다.

/공동체정책과 041-635-3421



연간 500만 원 이내

고향사랑 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道, 일제강점기 읍면동장 액자 철거

친일행적 공직 복무기록 정비
친일 잔재 동상도 청산 나서

충남도는 2월 14일 충청남도 친일잔재 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도의회, 교육청, 대학, 연구소, 민간단체 등에 소속된 전문가와 업무 관련 공무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했으며,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위원들은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의 영향으로 도내 남아있는 친일 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아울러 친일 잔재의 체계적인 조사·관리를 위해 진행 중인 친일 잔재 기초조사 연구용역의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해당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친일 인물 선별 및 활동 내용 조사 ▲친일 인물의 친일 재산 현황 조사 ▲친일 인물 관련 건축물·기념비·동상 등 유형 잔재 조사 ▲친일 잔재 청산 대책 제시 등으로, 오는 3월 말까지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친일 잔재 청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지속적인 청산 활동을 위한 학술 연구

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친일잔재연구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도내에 남아있는 각종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활동에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면서 “위원회와 함께 역사 바로 세우기의 토대를 만들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친일 행적이 있는 역대 도지사와 일제강점기 복무 기록이 있는 읍·면·동장의 액자를 철거하고 친일 인물과 관련된 비석 주변에 친일 행적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 친일 잔재 청산 업무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문화정책과 041-635-3812

‘청플’에서 소통하고 봉사활동 해요

온라인 플랫폼 ‘청PLAY’ 앱 개발

충남도 청소년진흥원은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인 ‘청Play(청플)’ 앱을 개발했다.
청플은 ▲청소년활동 ▲청소년참여 ▲청소년봉사 세 가지 카테고리로 청소년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앱이다.
이 앱을 활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숏폼영상

을 공유할 수 있고, 도내 청소년진화 시설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청소년들이 지역 사회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며, 실시간 GPS 기능을 활용한 자기 주도적 비대면 봉사활동 기능도 갖췄다.
도 청소년진흥원은 청플 정식 운영과 함께 가입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가족정책관 041-635-2045

충남도립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28일까지 홈페이지 수강신청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김용찬) 평생교육원은 2022학년도 1기 정규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강신청 접수 기간은 28일까지이며,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lei.cnsu.ac.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기 정규 강좌는 ▲직업능력 및 자격증 ▲인문교양 ▲외국어 ▲문화예술 ▲생활체육 등 5개 분야 29개 강

좌가 진행된다.
직업능력·자격증 분야는 한국어강사 양성부터 커피바리스타(2급), 통합인지놀이지도사(2급), 엔터테인먼트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 등 5개 강좌가 마련돼 있다.
생활체육 분야는 명상호흡, 라인댄스, 힐링댄스스포츠, 플라워&피플 요가 등을 개설, 도민 선택의 폭을 넓혔다.
/충남도립대 041-635-6672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지역농축협 방문 신청해야

충남도는 사과 등 67개 품목을 재배하는 도민들이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929억 원을 투입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가입은 가까운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을 재배 하더라도 품목별 파종시기와 수확시기에 따라 가입 시기가 다른 만큼 재배작물의 가입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시군마다 가입비의 80~100%를 지원한다. 계룡시가 전액, 아산시·홍성군 80%, 천안시 83%, 나머지 시군은 90%를 지원한다.
/식량원예과 041-635-2521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읍면동에 신청하세요

3월 25일까지 신청·연 20만 원 지원
충남도는 오는 21일부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행복바우처는 연간 20만 원 한도 내

에서 건강관리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행복카드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고,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m² 미만이거나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이다.
신청은 내달 2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농업정책과 041-635-4015

‘내포쌍’ 단절구간 없이 달린다

홍성·예산군 교차로 막힘없애

충남도는 올 하반기 내포신도시 내 공공자전거 ‘내포쌍’의 정식 운영에 앞서 이용 활성화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자전거도로를 전면 개선한다.
도와 홍성·예산군은 교차로와 버스승

강장 인근 보행자 대기공간과 공원·녹지 내 단절된 구역을 비롯해 횡단보도, 아파트 진입로 등 구간을 연결한다.
자전거횡단도로의 경계석 턱을 낮춰 장애물 등에 안전한 자전거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신도시 내 자전거안전교

육장도 설치할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내 자전거도로는 28개 노선 70.1km로 계획됐으며, 신도시 동서 간 2.5km, 남북 간 5km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돼 있다.
공공자전거 시스템(U-bike)은 하반기 생활교통수단 자전거(내포쌍) 335대를 시작으로,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혁신도시정책과 041-635-4598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성공 총력

도청서 보고회 열고 논의

충남도가 150일 앞으로 다가온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준비상황을 살피고 성공 개최를 위한 관계기관 간 결의를 다졌다.
도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실행계획 및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중점 과제는 ▲2022 아시안컵 보령 국제요트대회 연계 홍보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 점검 강화 ▲대중교통 편의 시설 개선 및 운송체계 구축 ▲제8회 환황해 포럼 개최 ▲자

원봉사자 운영 지원 등이다.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는 해양 산업과 해양 머드 콘텐츠의 발전·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대규모 산업 박람회로, 전 세계 12만 명의 외국인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제행사다.
행사는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 보령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진행한다.
/해양정책과 041-635-4766

도, 세계 물의 날 기념 그림 공모전

3월 2일부터 25일까지 접수

충남도는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하나 된 물(통합 물관리)’을 주제로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도내 초·중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월 도화지에 주제와 관련된 회화, 포스터(수채, 유채, 크레용 가능) 등 그림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작품 접수는 3월 2일부터 25일까지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대전시 유성구 테크노4로 17 대덕 비즈센터 C동 102호 그림공모전 담당자 앞)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4월 중으로 도 누리집에 게재하고 소속 학교에 통보할 예정이다.
/물관리정책과 041-635-4472

충남 바다, 해양용도구역 지정

관할 영해 7645㎞ 체계적 관리

충남도와 해양수산부가 도 관할 영해 7645㎞를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에 돌입한다.
도와 해수부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한 도 관할 영해를 9개 구역으로 나눠 통합·연계 관리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충남 해양공간은 주꾸미·대하·꽃게 등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천갯벌 등 보전 가

치가 높은 해역이 많으며, 섬·해수욕장·자연경관 등 자연·생태자원이 뛰어나다.
도와 해수부는 ▲어업활동보호구역(45.2%) ▲군사활동구역(44.7%) ▲항만·항행구역(8.5%) 등 9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했다.
도는 선전식 이용과 난개발 등 그동안 개별 법령에 따라 이용·개발·보전이 이뤄져 발생했던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운항만과 041-635-2793

독립투사들의 외침과 수천의 애국 함성 들리는가

3·1절 103주년, 내포 충남보훈관을 찾아

심훈 선생의 '그날이 오면' 벽면에 새겨
빛살무늬 토기 모양 충혼탑엔
1000개의 정육면체로 애국지사 영혼 담아

유관순·김좌진·이동녕·윤봉길

한용운 독립운동가거리 조성

충남도,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하고

유관순상·유관순햇불상 등 애국 함양

올해 3.1절 103주년이다. 기미년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은 서울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103년 전 선열들은 조국독립을 위해 만세를 목놓아 외쳤고,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났다. 충남 논산, 부여, 예산, 천안, 홍성 등 전역에서 3.1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충남은 항일독립운동이 활발했던 역사적인 고장으로, 김좌진, 유관순, 윤봉길, 이동녕, 한용운 등 항일운동을 펼친 애국자를 배출한 곳이다. 충남도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이해하고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유공자 예우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충남 보훈관에 1021명 독립투사 추모

충남 보훈관은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 일원 위 치해 있다. 충남 보훈관을 중심으로 보훈공원, 충훈탑 등 공간으로 조성돼 있는데, 각 공간마다 테마가 있다. 우선 시간의 터널부터 관람을 시작 하면 좋다. 독립운동가이자 소설 상록수 작가 심 훈 선생의 ‘그날이 오면’ 글귀가 벽면에 새겨 있 다. 시간의 터널을 통과하며 현재에서 일제강점 기 과거 그날로 거슬러 가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시간의 터널을 지나 전시실에 들어서면 전시관 대일항쟁기 독립전쟁, 6.25전쟁, 베트남 전쟁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국가유공자 1인의 삶을 기록한 메인 영상공간이 배치돼 있는데, 김좌진, 유관순, 윤봉길 등 1021명의 정보가 저장돼 있다. 이와 함께 AR체험공간과 VR체험공간, 보훈군가 듣기 체험공간 등이 마련돼 있다. 보훈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 설 날, 추석은 휴관이며, 자세한 내용은 ☎041-635-10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총혼탑 15미터는 15개 시군 표현

충혼탑은 충남 15개 시군을 뜻하는 15m 높이로, 거대한 빗살무늬토기 모양으로 설치됐다. 특히 항일운동 독립운동자와 6.25 전쟁 참전용사 등을 기리기 위해 애국지사의 육신을 상징하는



내포독립운동가 거리는 광복위해 목숨바친
자주 독립 아로새기는 역사 교육의 장
조형물 바라보면 반드시 나라 되찾겠다는
독립운동가들의 강한 의지 느껴져



1 보훈공원 전경 **2** 충혼탑 **3** 3.1운동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4** 독립운동가의 거리



1000개의 정육면체 블록을 쌓고, 그 사이엔 부여에서 발굴된 송국리 청동검 모형의 모듈을 달아 애국지사의 영혼을 표현했다. 용봉산 자락에 위치한 충훈탑은 바람이 불자 청동검이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다. 또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름 모를 영웅들을 기리기 위한 무명용사의 비도 설치돼 있다.

항일 운동 여성상, '혁명전야' 우뚝

보훈관과 보훈공원은 이어져 있어 보훈관 관람 후 보훈공원까지 둘러보면 좋다. 충훈탑을 지나 다리를 건너면 내포신도시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권주는 보훈관 안 내·해설사는 “24절기를 의미하는 태극기 다리에서 내포신도시를 바라보면 대로가 보이는데, 광화문 육조거리를 연상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보훈공원에는 독립운동가의 거리가 있다. 독립운동가의 거리는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주독립의 의미와 애국·애족 정신을 되새기는 역사 교육의 명소로 독립운동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태극의 길과 도 대표 독립운동가 5인 조형물이 설치돼있다. 김좌진 장군,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이동녕 선생, 한용운 선생 등 도 대표 독립운동가 5인 조형물(동상)을 태극의 길 위에 세워 의미를 더했다. 조형물을 지나면 대한독립여자선언서 전문이 새겨진 비석과 항일독립운동여성상 ‘혁명전야’가 세워져 있다.

충남도, 예우 확대하고 애국정신 확산

충남도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며 다양한 보훈사업을 추진한다. 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충남 참전명예(복지) 수당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보훈가족 밑반찬 지원사업도 한다. 이 사업은 도내 저소득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주 1회 밑키트(간편조리식)를 4~12월까지 배송하며 보훈가족 위기상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독립유공자 가족 위문품 배부 행사도 진행 중이며, 충남에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인 이일남 선생을 방문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수권 유족 대상 버스비
무료화 사업을 추진하고, 도서지역 거주하는 유
공자의 경우 여객선 및 도선 이용 시 무료이다.

아울러 도는 유관순 열사의 애국정신을 본받고, 현대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유관순을 지속 발굴하기 위해 유관순상·유관순햇불상 수상자를 매년 선정한다.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유관순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유관순햇불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국내·외에 선양·구현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애국·애족 정신을 실천한 여성 등을 자격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김정원 jwkim87@korea.kr

일제 잔재 토지대장 한글로 다시 쓴다

道 한자, 일본식 표기 한글화 작업

9개 시군 토지대장 123만 매 대상

문서 전산화로 민원서비스 강화

충남도는 일제강점기 한자와 일본식 표기로 만든 토지대장을 한글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3개 시군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을 올해 9개 시군으로 확대해 도민 대상 지적행정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글화는 토지대장을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고 토지표시사항·이동 연혁·소유자 정보를 한글로 바꾸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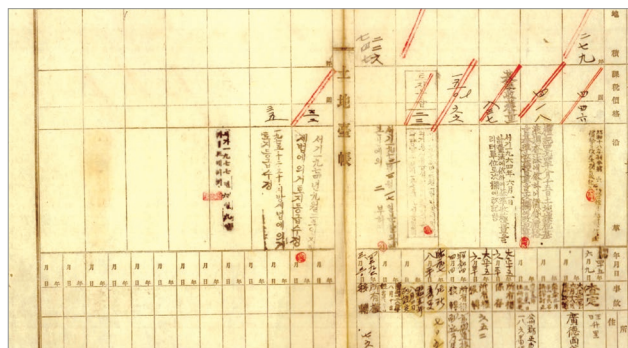
이번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은 도 단위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일제잔재 청산, 한글화 작업을 통한 민원인 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 있어 의미가 깊다.

올해 천안·공주·보령·아산·논산·계룡·당진·부여·청양 9개 시군의 토지대장 123만여매를 한글화할 계획이다.사업이 완료되면 일제잔재 청산과 영구 보존문서의 전산화가 가

옛토지대장
 능해진다. 또한 민원인이 알기 쉽게 한글로
 표기해 ‘조상땅 찾기’ 등 지적민원서비스 제
 공도 기대된다.

토지대장은 토지표시사항 변동을 확인할 수

/토지관리과 041-635-4799



옛토지대장



한글화 작업된 토지대장

천수만에 새조개가 돌아왔다

도, 올해 75톤 생산 예상
남획 탓 8년간 생산량 '0'
2017년부터 새조개 모패 방류

충남 천수만에 새조개가 돌아왔다. 새조개는 쫄깃한 식감과 바다향 가득한 맛 때문에 서해안 대표 별미로 각광받고 있으나, 그동안 생산량이 급감하며 ‘금값’을 주고도 구하기 어려웠다. 도에 따르면 2012년부터 8년 연속 생산량 ‘0’을 기록하던 새조개가 2020년 이후 다시 잡히기 시작해 올해에는 70톤 이상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생산량은 75톤 가량으로 예상된다.



8년만에 돌아온 충남 천수만 새조개

특히 새조개 생산량이 도의 방류 사업 이후 급증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도는 2017년 2월 새조개 모패 1만 4590패를, 2018년 6월에는 중성패 97만 패를 천수만에 방류했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자체 개발한 새조개 대량 인공부화 기술을 활용, 2019년 7월 1cm·1g 안팎의 치패 30만 패를, 지난해 7월에는 50만 패를 생산해 각각 방류했다.

현재 새조개가 주로 생산되고 있는 곳도 방류 해역과 일치하고 있다. 방류 해역에서 채취한 새조개와 도 수산자원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새조개 모패의 유전자 패턴이 동일한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해 10월 치패 방류 해역 조사 등을 위해 잠수인력을 투입, 현장에 서식 중인 5cm·50g 안팎의 새조개 3개체를 포획했다. 이어 포획 새조개와 도 수산자원연구소 보유 새조개 모패 간 유전자를 비교, 포획 새조개가 연구소 모패의 친자인 점을 확인했다. 도 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어업인들도 향후 새조개 방류 해역과 양을 늘려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773



“새콤달콤 충남감귤 어떠세요”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농가들이 기후변화와 과일 소비 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12억 4000만 원을 투입해 아열대 작물 재배 기술보급 사업 등을 추진한다. 도 농업기술원은 남부지역에서만 재배되던 감귤류를 2012년부터 지역 농가에 보급해 왔다. /충남농업기술원 041-635-6171

충남도, 수입 원자재 공급 차질 대비한다

공급망 관리 회의 열고 요소수 등 20개품목 집중 관리 나서

충남도가 산업별 수입 원자재 관련 공급망 대응 체계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지난 2월 18일 ‘제2차 충남 산업별 원자재 공급망 관리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도는 1차 회의에서 보고된 수입 품목 중 집중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충남연구원 임병철 연구원은 “단일 국가 수입 의존도가 80% 이상인 충남의 324개 수입 품목 중 국내 생산 및 대체 가능성을 기준으로 20여 개 품목을 집중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며 “요소수 사태나 우크라이나 사태

처럼 대외 여건이 발생했을 때 불안정성이 가중되지 않도록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충남 집중 관리 품목 선정 ▲공급망 관리 전담반(TF) 체제 정비 등 취약 품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선제 대응 사례를 발굴해 대책을 구제화할 계획이다. /경제소상공과 041-635-3318

道 창업 메카로 발돋움한다

창업중심대학 공모 호서대 선정
충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창업중심대학’ 공모에서 대전·세종·충남·충북을 아우르는 충청권역의 지역 청년창업을 이끌 핵심 거점으로 호서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호서대는 매년 최대 75억 원씩 5년간 37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사업 목표는 연간 총 85개사(예비 40·초기 25·도약 20개사) 내외이며, 선발한 창업자를 성장단계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프로그램은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등이며, 창업 교류·협력, 창업문화 확산, 창업 역량 강화 등 자을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창업중심대학 사업은 각 지역 권역별 우수한 역량을 지닌 기관을 선정해 지역 창업 확산 및 성장단계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대규모 창업 지원 사업이다. /기업지원과 041-635-3446

학교 먹는 물 찾아가는 수질검사

태안·홍성 등 108개 학교 대상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학교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수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태안·홍성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78곳과 도내 지하수 음용학교 30곳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부터 매년

기 먹는 물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교 및 교육지원청, 교육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부적합한 경우 음용 중단을 신속히 통보하고, 소독 등 시설개선 조치 후 재검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받으면 먹는 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041-635-6885

국내 무역흑자 1위 충남 기업가정신으로 혁신 촉발시켜야

충청의 기업가 정신

성숙기 단계 도약 위해선
지식정보와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기회 창출 나서야

충남 경제가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는 매우 크다. 무역흑자 1위이며, 수출액수로는 2위이다.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까지 제조업의 핵심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필자와 한정훈 박사가 수행한 충청 벤처기업과 경기 벤처기업의 비교 연구에 의하면 충청 산업단지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경기도 벤처기업들은 대부분 성장기에 있는데 비해 충청의 벤처기업은 성숙기에 있다. 그리고 충청 벤처기업은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정보기술도 부족하고, 석박사 학위자도 크게 적다. 만약 새로운 혁신이 없으면, 저부가제조업은 베트남 인도에 빼앗기고, 고부가 지식산업은 수도권으로 빼앗길 수 밖에 없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충청권 기업인에게 기업가정신을 불어넣어야 한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정보를 주고, 이러한 변화에서 기회를 찾는 방법, 기회를 획득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는 기업, 이를 실행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10년간 1000명 넘게 기업가정신을 교육해본 경험에 따르면 약 40시간 내외의 교육으로 기업가정신의 함양이 가능하다. 4학 5일을 워크숍이나 15주의 3시간씩 교육 등으로 많은 기업인들이 기업가정신의 태도를 배우고, 지식을 습득하고, 연습을 통해 체화시켰다. 강의 만족도도 평균 98점으로 매우 높았다. 충청 산업이 기업가정신으로 충만해 있을 때, 반도체 제조공정은 AI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수요가 예측될 것이며, NFT기술과 결합된 OLED 액자가 개발되고, 블록체인으로 인증된 주문서가 대기업과 협력 업체 간에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을 뛰어넘고 중국을 따돌리는 세계 최고의 제조혁신 산업단지로 발전할 것이다.



이 종 원
호서대학교 부총장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으로 해결하세요

강사·상담사 18명 위촉

충남도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충남스마트쉼센터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와 정보통신 윤리교육, 정보화역기능 해소 사업을 수행한다. 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사 및 상담사 18명을 위촉했다.

가정, 학교, 단체 등 인터넷·스마트폰 예방교육이 필요한 곳에 상담과 교육 등을 지원한다. 예방교육 및 상담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www.iapc.or.kr) 또는 전화(☎1599-0075, 041-635-5834-6)로 문의하면 된다. /정보화담당관 041-635-3711

49년된 농지원부 ‘농지대장’
4월 15일까지 전환 추진

충남도는 오는 4월 15일까지 49년간 농지의 공적장부 기능을 해온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한다.

작성 대상은 현행 1000㎡ 이상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하고, 농지대장 작성기준은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지번)별로 변경한다.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의 주소지에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한다. /농업정책과 041-635-2514

미래를 향한 창조적이며 혁신적 도전!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도전

세계 속에 함께 뛰는 젊은 충청권을 만들기 위한 발돋움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 서명하러 가기

道, ‘항공기’ 띄워 미세먼지 정밀감시 나선다

항공기, 드론, 스캐닝라이다
대기오염측정소, 측정차량 등
첨단장비 활용 미세먼지 관측

충남도가 미세먼지 ‘육해공 감시망’을
가동한다.

도에 따르면 도는 중부권미세먼지연
구관리센터(이하 중부권미세먼지센터·
센터장 김맹기 공주대 교수)를 통해
대기질 항공 관측을 실시 중이다.

이번 항공 관측은 한서대가 보유

한 19인승 중형 항공기를 이
용한다.

가내에는 ▲미세먼지 질량분
석기 ▲블랙카본 분석기 ▲나노
입자 계수기 ▲극미량 질소계 전구
물질 화학이온화 질량분석기 ▲암모
니아 측정기 등 13종의 첨단 장비를
설치했다.

이 항공기는 보령·태안·당진화력발
전소,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당진
제철단지, 당진항 등 서해안권 대형
배출사업장 1km 상공을 돌며 아황산가
스(SO2)와 암모니아(NH3) 등 미세먼

지 전구물질을 측정한다.

중부권미세먼지센터는 이달부터 오
는 2024년까지 3년 동안 계절관리제



항공기로 미세먼지를 관측하고 있다. 사진/맹철영



드론으로 미세먼지를 관측하고 있다.



헬륨풍선으로 미세먼지를 관측하고 있다.



스캐닝라이다로 미세먼지를 관측하고 있다.

기간을 중심으로 36차례에 걸친 항공
관측을 통해 대형 배출원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검증한다.

또 기상·기후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정도를 살피고, 대기질 위험을 예측하
며 감시 기반도 구축한다.

중부권미세먼지센터는 이와 함께 헬
륨풍선에 상공기상관측장비인 라디오
존데를 매달아 20km 상공까지 띄워 고
도별 기상장(온도·습도·기압·풍향·풍
속)을 관측한다.

드론으로는 500m 이하 대기질 관측
을 실시한다.

헬륨풍선 및 드론 관측은 미세먼지
관련 국내외 문제점 발생 시 3~6시간
간격으로 당진시 석문면 왜목마을 인
근 바닷가에서 진행한다.

해상 관측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당진
항지원센터에 설치한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를 활용해 추진한다.

이 장비는 내포신도시(9.95km²) 8배에
가까운 면적의 대기질을 30분 내 관측
할 수 있다. 다음 달 말까지 당진항
입출입 선박과 하역 비산먼지 등을 측
정한다.

측정 결과는 도가 인천시, 경기도와
손을 잡고 추진 중인 ‘서해안권 초광
역 대기질 개선 프로젝트’ 추진 참고
자료로 쓸 계획이다.

육상 측정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가동 중인 기존 도내 고정식 대
기오염측정소 43개소와 대기오염이동
측정차량 2대를 활용한다.

/푸른하늘기획과 041-635-4417

주차장에 스마트기술 적용으로 주민 복지 높인다

주차장 공유, 지능형감시카메라
스마트 횡단보도 등 57억 투입

충남도는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충남형 스마트 행복도시 만
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12곳에 57억
원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스마트 씬지 주차장
▲스마트 공원 ▲스마트 교통안전환경
개선 3개 분야로, 주차장 4곳 32억 원,
공원 3곳 15억 원, 교통환경 5곳 10억
원이다.

씬지 주차장은 도로가 비좁고 주차
장이 없어 주거 생활이 불편한 원도심
지역에 주차장 공유 시스템 및 감시카
메라(CCTV)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하
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아산시 방죽동 77
면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40면 ▲부
여군 규암면 외리·부여읍 동남리 80면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40면 등 4개
시군 237면이다.

스마트 공원은 리모델링이나 신규
조성이 필요한 공원에 스마트기술(스
마트 벤치, 안심벨, 공공 와이파이, 지

능형 감시카메라 등)을 도입해 주민들
이 다시 찾고 싶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은 도심지 및
관광지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 교통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스마
트 횡단보도, 감시카메라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도는 사업이 완료되면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대한 체감도 향상과 정주환
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정책과 041-635-4629

5만 8000여 다문화가족과 함께 해요

도, 다문화어울림사업 15억

충남도는 다문화가족 5만 8000여 명
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다문화어
울림사업’에 15억 5000만 원을 투입
한다.

올해 도와 시군이 추진하는 필수사
업은 ▲다문화가족자녀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 사업 ▲다문화상호문화이
해교육 ▲다문화가족 취·창업 지원
▲지역별 대표과제 ▲다문화신문 발
간 등 총 5개 사업이다.

도는 학습능력 향상과 사회성 발달

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거주 시
군과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해 역량 개발 및 글로벌 인재 양성에
나선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 자립을
위해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보육교
사·조리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 시 교
육비 일부를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귀화
자 등 다문화가족은 시군 다문화가
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
면 되며, 참가비용은 없다.

/여성가족정책관 041-635-4997

이순신은 왜 무과를 선택했을까?

충무공 이순신 이야기

어린시절 무인 기질 다분

친가, 외가, 처가 영향도

32세 무과급제 무관의 길

이순신장군은 결혼한 지 1년 후인
22세의 늦은 나이에 무과를 준비하
게 된다. 송문천무(崇文賤武)의 조선
사회에서 무과로 진로를 바꾸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표면적으로는 무관출신인 장
인 방진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
만이였을까?

승지 최유해(崔有海)가 지은 이순
신의 「행장」에 의하면 ‘이순신은
호탕하여 구속을 받지 않았고 기백
이 뛰어났으며, 여러 아이들과 장난
할 때도 진 치는 놀이를 하였고, 이
순신을 대장으로 삼았는데 그 지휘
하는 법도가 아주 불만했다’고 한다.
이순신의 조카 이분(李芬)이 쓴



무과 시험에서 낙마한 이순신

「행록」에도 ‘처음에 두 형을 따라
유학(儒學)을 배웠는데, 재주가 있어
서 성공할 만도 했으나 매양 붓을
던지고 무관이 되고 싶어 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어릴 때부터 무인
로서의 기질과 열망이 다분히 있었
던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 아산이라는 고을
에서 문과에 합격하기란 쉽지 않았
다는 현실적인 환경도 들 수 있다.

당시 아산은 제대로 된 사족사회가
형성되지 못할 정도로 궁벽한 고장
이어서 이순신이 문과에 급제하기는
매우 열악한 형편이었다.

한편으로 이순신의 친가, 외가, 처
가가 모두 무인적 배경이 있어서 무
과 준비에 유리한 상황이었다는 점
도 들 수 있다. 아버지 정은 창신교
위(彰信校尉, 종5품 무관직), 외삼촌
변오는 충순위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외사촌 변존서도 무과에 급제하였다.
음직으로 무관생활을 하여 보성군수
를 역임한 장인 방진의 영향뿐만 아
니라 친가와 외가의 영향도 컸다고
볼 수 있다.

이순신은 무과 준비에 열정을 쏟
아 28세 때인 1572년(선조 5)에 훈련
원별과 시험에 응시하였지만 낙마
(落馬)로 급제에 실패하였다. 하지만
부상을 치료하고 열심히 재 수련하
여 4년 후인 1576년(선조 9) 식년시
(式年試) 무과에 당당히 급제할 수
있었다.

/제장명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장

악취로부터 도민 건강 지킨다

도내 악취관리지역사 실태조사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서산시와
당진시 등 도내 악취관리지역에 대
한 실태조사를 한다.

도내 악취 실태조사는 서산시 대산
공업단지와 당진시 부곡국가산업단
지, 현대제철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
시 중이다.

조사대상은 3개 지역 22개 지점으

로 ▲관리지역 11지점 ▲부지경계선
의 경계지역 4지점 ▲악취관리지역
인근 영향지역 7지점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악취 오염도 파악
및 데이터에 기반한 효율적인 악취 저
감 관리정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한다.

조사 결과는 연구원 누리집(www.
chungnam.net/healthenvMain.do)을
통해 공개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041-635-6901

영농철 농기계 수리지원합니다

도서·오지지역 대상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농업기계 수리
지원과 안전교육을 한다.

올해 지원 사업은 16일부터 농업기
계 수리·정비가 어려운 도서지역 3개
소, 수리점과 멀리 떨어져 있는 오지
지역 15개소에서 시군농업기술센터
와 합동으로 추진한다.

상반기에는 보령시(삼시도), 보령

시(장고도), 서산시(우도), 공주시(의
당면·신평면), 서천(판교면), 당진시
(정미면·면천면), 태안군(근흥면·군
북면), 예산군(광시면), 천안시(성환
읍), 부여군(은산면), 서산시(팔봉면),
홍성군(홍동면)이 대상이다.

하반기는 논산시(벌곡면), 보령시(오
천면), 태안군(남면)을 대상으로 수리
지원과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충남농업기술원 041-635-6209

도, 1129억 들여 시군체육시설 확충

아산·홍성 등 71개 시설 새단장
내포엔 내년 5월 스포츠센터 건립

충남도는 국민생활체육 활성화와 우수 선수 육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올해 체육진흥시설 확충 71개 사업에 1129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추진 사업은 체육진흥시설 지원, 생활 SOC 공도, 도비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세부 사업은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종목별 실내체육 및 운동장 체육시설 건립·조성 18개소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등 3개소 ▲국민체육센터 건립 12개소 ▲다목적체육관 건립 1개소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9개소 ▲도민체육대회 시설 보수·보강 2개소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보수·보강 23개소 등이다.

충남스포츠센터는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내에 475억 원을 투입, 내



충남스포츠센터 조감도

년 5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이 센터에는 국제 규격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통합운영센터 등이 들어선다.

종목별 실내체육 및 운동장 체육시설 사업에는 ▲공주 전천후 실내풋살장 건립 ▲보령 수영장 건립 ▲서산 족구장 조성 ▲논산 시민생활체육시설

조성 ▲부여 카누종합훈련센터 건립 ▲서천 생활체육관 건립 ▲홍성 결성 야구장 조성 ▲예산 덕산북합문화체육센터 조성 등이 있다.

노인건강체육시설 지원 사업으로는 ▲보령 파크골프장 조성 ▲아산 게이트볼장 보수 ▲당진 남산게이트볼장 복합화 등을 추진한다.

/체육진흥과 041-635-3866

상하수도 시설 4506억 투입

지방상수도 확대, 수질 보전

충남도가 올해 상하수도 보급률과 유수율 개선을 위해 관련 시설 확충에 총 4506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상수도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지방상수도 확대를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소규모 수도시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3개 분야에 975억 원을 투입한다.

정수장 등 수도시설 수질 개선, 유수율 제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지방상수도 사업 경영 개선을 위한 ▲노후정수장 정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스마트관망 기반 구축 등 6개 분야에는 932억 원을 투자한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적절한 하수처

리로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주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하수관로 정비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10개 분야에 2562억 원을 투입한다.

노후 상수관로·하수관로를 정밀 조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노후관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앞으로 분기별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지구 간 사업비 조정 등으로 신속 집행 및 이월 사업비 최소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2016~2020년 도 상수도 보급률은 연평균 0.94%, 하수도는 연평균 1.56% 향상됐으며, 이는 전국 연평균 상승률인 상수도 0.13%보다 7배 이상, 하수도 0.35%보다 4배 이상에 달하는 높은 수치이다.

/물관리정책과 041-635-4478

일상 속 불편함 공유하고 대책 마련한다

도, 3월 5일까지 혁신가 모집

충남도는 충남사회혁신센터와 일상 속 불편함을 발굴하고 해소할 ‘보통의 혁신가(이하 혁신가)’를 모집한다.

혁신가는 도내 거주하거나 직장, 학교 등 연고를 둔 도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30여 명의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40만 원)를 지

원한다.

제안한 아이디어가 지역의제로 확대되거나 아이디어 고도화 과정이 필요한 제안으로 판단될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사업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한 디자인 조연과 캠페인 물품 등을 제작할 디자이너도 함께 모집한다.

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 이메일(hello@cnic.kr), 우편접수(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 2길 22, 2층 충남사회혁신센터 사무실), 구글 신청폼 작성 및 제출(https://forms.gle/rCQuA2yq3ZCMuuYN8)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사회혁신센터 누리집(www.cnic.kr)을 참조하면 된다.

/공동체정책과 041-635-3473

성주사 금당 오르던 돌계단이 사라졌다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충남의 도난문화재

보령 성주리 성주사지 내 석계단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석계단

양쪽 돌사자상 조각수법 뛰어나

1986년 석계단 도난 후 복원

충남 보령군 성주사지의 금당지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석계단이 실려있다. 성주사지 금당의 계단은 잘 다듬은 널찍한 돌을 이용하여 5단으로 쌓아 올렸다.

금당을 오르던 계단으로, 원래는 양쪽 소맷돌에 사자상을 조각해 두었으나 1986년에 도난을 당하여 당시의 사자상은 없고 현재 있는 것은 사진을 근거하여 새로 복원한 것이다.

석계단은 1984년에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40호로 지정되었다. 이후 1986년 1월 도난당하여 현재까지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 도난은 특히 시간오지에 위치한 사찰·암자·서원·향교·개인 사당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

하지만 신고가 된 도난·도굴 문화재는 유통되는 순간 범망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

도난 유물을 되찾는 것은 물론 사건을 예방하는데도 신고는 상당히 중요하다.

또한 사진과 최소한의 목록을 작성해두면 불가피하게 문화재를 도난당한 경우 도난품 여부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불법거래 방지 및 회수가 용이할 것이다.

/장은술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문화유산교류협력부 연구원

쌀알 굵어 식감 뛰어난 왕자향, 송알흑찰 개발됐다

안토시아닌 함량 신농흑찰 2배

충남도 농업원기술원은 쌀알이 1.5배 더 큰 ‘왕자향’과 안토시아닌 함량이 2배나 많은 ‘송알흑찰’ 개발에 성공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유색미 중 쌀알이 가장 큰 왕자향은 구수한 향이 나는 홍갈색 대립 찰벼로 현미 천립중(날알 1000개 무게)이 31.7g으로 21.4g인 비교품종(적진주찰)보다 뛰어나다. 수량성도 우수하고 쓰러짐에도 안정적이나 이삭에 까락이 많은

편이다.

송알흑찰은 현미 천립중이 26.5g으로 왕자향 보다는 적지만, 흑미 품종 중 쌀알이 가장 크다.

기능성 성분인 안토시아닌 함량도 비교품종인 신농흑찰에 비해 2배가량 높다.

/충남농업기술원 041-635-6050



자치경찰위, 빅데이터로 안전한 등하굣길 만든다

안심 승하차 구역 조성키로

충남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월 신학기를 맞아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주요 추진사항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취약 지역 선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심 승하차 구

역 확보 ▲학교 주변 교통안전 시설 점검 및 시설 설치 ▲스쿨존 교통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학부모, 운전자, 어린이 맞춤형 교육 및 홍보 활동이다.

위원회는 먼저 충남경찰청과 함께 보호구역 지정, 방호울타리,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및 운전자의 가시성을 확보한다.

안심 승하차 구역은 서산, 당진, 금

산에서 시범운영 중인 드라이브스루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를 통해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또 학교부지와 교내 주차장 등을 활용해 안심 승하차 구역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041-635-5902

화수·화강 구기자 신품종 신청
2월 말까지 접수 3월 초 보급

충남도 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는 신 품종 대과 다수성인 화수·화강 등 12 품종을 분양한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은 뒤 다음 달 초 분양할 예정으로, 신청은 금승농원에서 하면 된다.

분양 품목 중 화수와 화강 품종은 농업인들로부터 인기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배관리, 병해충 방제, 시비관리 등은 유튜브에서 ‘구기자 영농교육’을 검색해 동영상상을 시청하거나, 충청남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및 구기자연구소(☎041-943-111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충남농업기술원 041-635-6386



복원된 성주사지 석계단(충남역사박물관)

충남 이주,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타 지역 청년 2~4주 체험 지원
28일까지 참여 시군 모집

충남도가 전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충남에서 살아보기’ 체험을 제공한다. 1개월 정도 거주하면서 이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지역에서 2~4주 살기 체험을 지원하는 ‘충남형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과 지역 청년간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오는 28일까지 공모를 통한 참여 시군을 모집하고, 다음 달 사업을 수행할 시군을 선정한 뒤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충남형 청년 갭이어는 타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정착과 관계인구 형성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시군은 주민화합, 지역체험, 정보습득, 현장견학, 교육참여, 지역나눔 등 청년들이 지역을 이해하고, 이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한다.
지역착근형은 도내 거주 중인 청년

들에게 경제·금융, 문화·예술, 창업 등 다양한 분야 교육을 지원하는 ‘청년학교’와 동아리 활동을 통해 건강한 청년문화를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청년커뮤니티’ 사업으로 나뉜다.
시군은 직접 사업을 추진하거나 역량 있는 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참여 희망 단체는 시군에 사업 응모 여부를 사전 문의한 후 해당 시군에 공모 신청서를 접수하고, 시군은 28일까지 도 청년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청년정책과 041-635-2293

편안한 마음으로 산후조리하세요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산모 첫 입실
장애인, 셋째는 10~50% 추가 감면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충남도는 2월 18일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이후 첫 입실한 산모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2주 기준 182만 원이다. 수급자, 장애인, 셋째 이상 등은 이용료의 10~5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예약은 분만 예정달 2개월 전 매달 첫 번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방문예약이 원칙이다.
자세한 내용은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041-630-63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산보육정책과 041-635-4544



충남여성가족연구원 현판식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충남여성가족연구원으로 공식 명칭을 변경했다. 1999년 재단법인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설립 이래 시대변화 등을 반영해 23년 만에 명칭을 변경했다. /충남여성가족연구원 042-820-0262

공주의료원장에 임수흠 씨

임기 2025년 2월 13일까지

충남도는 공주의료원장에 임수흠(사진) 전 서산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임명했다.
임기는 2025년 2월 13일까지 3년이다.
임 신임 원장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21년간 서울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운영했으며, 최근 3년은 서산의료원 소아청소년과장으로 근무했다.



이 뿐만 아니라 코로나 선별진료소 업무, 예방접종 예진 등 코로나19 대응에도 적극 참여했다.
임 원장은 “경험을 바탕으로 공주의료원이 코로나 이후에도 지역거점 병원으로서 도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원으로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보건정책과 041-635-2645

장애인가족힐링센터 설계 당선작 선정

내년 착공 2025년 개원 목표

충남도는 ㈜디앤비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가 응모한 작품을 ‘충남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신축사업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힐링센터는 장애인 가족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18-1번지 일원에 지하1층-지상4층(연면적 6250㎡) 규모로 건립한다.
도는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5년에 당선작을 토대로 한 힐링센터의 문을 열 계획이다.
/장애인복지과 041-635-4278

충남도립대 정시 자율 모집

4차에 걸쳐 오는 28일까지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김용찬)는 ‘2022학년도 정시 자율 모집’을 실시한다.
모집 기간은 ▲정시자율 2차 2월 11~15일 ▲ 3차 16~17일 ▲4차 18~28일로, 학과별 결원 발생 시 운영한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졸업(예정)자

로, 초·중·고·대·대학원 제1학의 각 호에 해당하면 된다.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및 자율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원서 접수방법은 인터넷과 창구, 팩스(FAX) 모두 가능하다.
다만, 팩스 접수자는 서류 접수 후 반드시 전화(041-635-6699, 6642) 확인해야 한다.
/충남도립대학교 041-635-6699

금강하구 실뱀장어 불법 어업 단속

4월 말까지 해경 합동 단속

충남도는 4월 30일까지 실뱀장어 불법 어업 예방 사전 계도 및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이러한 무허가 조업으로 발생하는 실뱀장어 자원 고갈과 이로 인해 허가받은 어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실시한다.
단속 해역은 실뱀장어 불법 포획으

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금강 하구, 아산만 일원 등 도내 전 기수 지역이며, 도·시군과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등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 구역 위반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해루질) 등이며, 불법으로 포획한 실뱀장어의 유통 행위도 중점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과 041-635-4134

한돈협회·양돈농협 5450kg 기탁

소외계층에 나눔 실천

충남도 내 양돈농가들이 직접 생산한 돼지고기 ‘한돈’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을 실천했다.
도에 따르면 2월 14일 김은호 한돈협회 충남협회장, 심문근 대전충남 양돈농협 상임이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돼지고기 5450kg(372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한 돼지고기는 양돈농가

들이 돼지를 키우며 조성한 자조금과 대전충남양돈농협의 협찬으로 마련했다.
도는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아동·장애인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돼지고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한돈협회 충남협회의는 지난해에도 대전충남양돈농협과 함께 돼지고기와 고기만두(1억 2000만 원 상당)를 기탁한 바 있다.
/축산과 041-635-2543

부드러운 양날의 검, 혀

내 몸이 들려주는 건강 이야기
맛 느끼고, 소리 다듬는 일도

길이는 10cm 내외, 무게는 55g 정도에 지나지 않는 혀는 특정한 형태나 골격도 없이 동굴같은 입 속에서 묵묵히 열렬하는 살덩어리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제 파트너인 치아를 열심히 섬기고 당신의 복잡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섬세하게 표현하려고 애쓰는 것이 혀의 주된 일입니다. 제 일상중 당신의 생존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꼽으려면 단연코 음식을 삼키는 일입니다. 저의 이웃인 치아는 사실 매우 위험한 친구입니다.

특히 어금니의 저작력은 최대 440kg까지 되니 제가 조금만 몸을 잘 못 움직인다면 그야말로 ‘작살’이 나고 말 겁니다.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저는 정확하게 음식을 굴려 골고루 씹히도록 하고 마침내 기도가 아닌 식도로 음식물들을 밀어냅니다. 가끔은 이쑤시개처럼 역할도 하고 입안의 청소부 역할도 군소리 없이 해내지요.

오감(五感)의 하나인 미각은 저의

또 다른 주요 기능 중 하나입니다. 시고 달고 쓴 네 가지 맛을 느끼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입니다.

즉 짠맛은 저의 끝에, 단맛은 중간 부위가, 쓴맛은 뒤쪽이, 그리고 신맛은 앞부분에서 느낀다는 것이인데요... 그렇다면 ‘감칠맛’은 어디서 느끼게요? 최근 밝혀진 사실은 맛을 느끼는 부위는 혀 뿐 아니라 입천장이나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도 가능하며 삼원색이 서로 섞여 다양한 색을 만들어내듯 네 가지 기본 맛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여러가지 맛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르신 중에서 입천장을 뒤덮는 틀니를 장착하게 되면 음식 맛이 변함을 호소하는 경우를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제 역할 중 또 하나의 정밀 작업은 ‘소리를 다듬는 일’입니다. 소리 자체야 저보다 훨씬 깊숙한 곳에 있는 성대의 몫이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생소리를 언어로 바꾸는 것이 바로 제가 하는 일이지요. 사실 이 과정은 단숨에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2년 정도 주의깊은 모방과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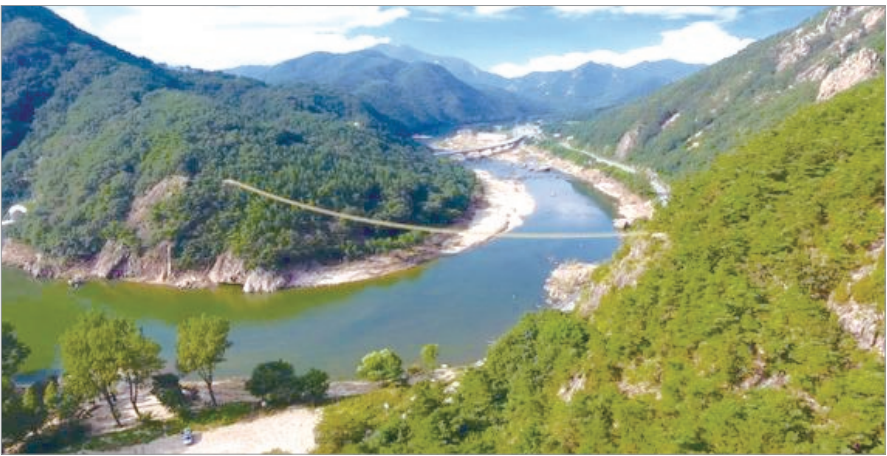
요. 입냄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적지 않지요? 많은 분들이 위장병을 의심하여 힘든 내시경 검사를 받기도 하시지만, 입냄새의 원인 중 대부분은 저 때문이라는 비밀을 아시나요? 양치를 할 때 10초만 시간을 내서 저를 닦아 주세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구취 문제의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자랑만 늘어놓았지만 사실 저는 양면의 칼 같은 위험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마음 한 번 빠뜨리게 먹으면 아주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니까요. ‘듣기는 속히 말하기는 더디게’라는 오래된 지혜를 말씀을 기억하시길.
/정유석 단국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아찔한 45m 월영산 출렁다리 3월 개통

금강 상공 가로지르는 길이 275m, 무주탑 설계 주변엔 인삼 어죽거리 등 먹거리

[금산] 금산군은 제원면 원골유원지 일원 월영산에 금강 상공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를 3월 말 개통할 계획이다. 금강 상류의 수변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월영산과 부영산 사이에 무주탑 방식으로 높이 45m, 길이 275m, 폭 1.5m 규모로 설계됐다. 군은 출렁다리 본체 설치 공사를 3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히 월영산 데크길 정비 및 전망대·주차장 등을 조성해 주변 원골인공폭포 및 인삼어죽거리 등과 연계한 관



3월 말 완공될 금산 월영산 출렁다리 조감도

광인프라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월영산 출렁다리가 금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에 나서고 있다”며 “군민들과 관

/금산군 제공



예산군이 지난 2월 8-18일 군청사 1층 전시공간에서 진행한 한복디자인 전시회 현장

예산군 한복 아름다움 널리 알린다

예산향교 한복디자인 전시회 수덕사, 추사고택, 예산향교 등 주요 11개 장소와 상징을 담은 한복디자인 전시회와 샌드아트 상영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전시회는 한복의 전통문화의 뿌리가 대한민국에 있음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예산군 제공

해미읍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한다

서해 왜구침입 방어 요충지 천주교 박해 아픈 역사 간직

[서산] 서산시가 사적 제116호인 해미읍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서산시는 전북 고창군·전남 순천시·경남 진주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한국 읍성 유네스코 공동 등재’를 추진한다. 읍성은 지방 군·현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것으로, 전국 각지에 98곳이 남아있다. 이 중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곳은 서산 해미읍성을 비롯해 고창읍성·무장읍성(고창군), 낙안읍성(순천시), 진주성(진주시) 등 16곳이다.

해미읍성은 조선 초기 잦은 왜구침입 방비와 해안 방어를 위한 중요 성이다. 1417년(태종 17년)부터 1421년(세종 3년)에 걸쳐 예산군 덕산면에서 옮겨와 축성한 충청 병마절도사의 병영성이다. 1652년(효종 3년) 청주로 병영이 이전되



서산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국가사적 제116호 해미읍성

청양군에서 세쌍둥이 송아지 탄생

이성희·최성옥 부부 이씨 부부는 연초에 찾아온 행운에 감사하면서 건강하게 자라길 기원했다. 이씨는 “어미소의 출산 기미가 보였고 앞발이 네 개가 잡혀 급히 수의사를 불러 차례로 송아지를 낳았다”며 “30여 년 간 한우를 사육하면서 쌍둥이 송아지가 태어난 적은 있는데 세 마리는 처음”이라고 기뻐했다. 이씨 부부는 30여 년 전 한두 마리 한우를 기르기 시작해 지금은 2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청양군 제공



청양군 비봉면 용천리 한우농가에서 태어난 세쌍둥이 수송아지

백제고도 부여 시가지를 정원으로 만든다

궁남지·백마강·정림사지 연결 보행 관광 가능한 정원도시로

[부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인 부여군이 정원도시로 탈바꿈한다. 부여군은 백마강과 궁남지, 정림사지, 부소산성 등을 하나로 연결해 시가지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꾸미는 ‘정원도시 조성 종합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군민과 관광객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보행과 사람 중심의 정원도시를 계획중이다.

군 관계자는 “도심 바로 옆에 4대강의 하나인 백마강이 흐르는 데다 한복판에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정원인 궁남지도 있어 정원도시 조성의 최적지로 꼽힌다”며 “국민 누구나 차에서 바로 내려 걷고 싶은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궁남지는 신라 선화공주와 무왕의 국경을 초월한 사랑이야기가 깃든 곳이다. 무왕 35년(634) 궁 남쪽에 못을 파고 20여 리 밖에서 물을 끌어들이고 못 가운데에 섬을 만드는 등 4년 만에 완공한 인공 연못이다. 매년 여름 1,000만 송이 연꽃이 피는



부여군이 조성할 정원도시 조감도

부여의 대표적인 자연경관형 문화재로 사적 제135호로 지정됐다. /부여군 제공

예산 ‘앵무새 아빠’ 귀농인 김재수 씨 화제

24년 외국 생활 접고 귀농 앵무새 사육해 틈새 소득

[예산] 24년간 외국에서 살다 고향인 예산군 오가면으로 돌아와 앵무새를 키우는 귀농인 김재수(58) 씨가 화제다. 김 씨는 1994년부터 브라질에서 10년간 의류판매업에 종사하다 브라질에서 앵무새를 키운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했다.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만족도를 느낄 수 있고 앵무새의 반려동물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봤다.

현재 김 씨가 살고있는 주택 1층에서 200여 마리의 앵무새를 기르고 있으며 번식과 이소 후 이유식을 해 애완조로 길들여 분양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앵무새 120여 마리를 분양해 2000여 만 원의 소득을 올리기도 했으며 전국 각지의 분양과 사육 상담이 하루 평균 10건 이상 이뤄지고 있다. 성장한 홍금강 앵무새의 경우 500만~1000만 원에 이른다는 것. 김 씨는 비교적 값이 저렴하고 소비층이 많은 중형 소형 앵무새 등에 비중을 두고 사업이 확장될 때마다 대형



앵무새 아빠로 소문난 김재수 씨

앵무새 비중을 높여 사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다. /도정신문팀

반려견 목줄 길이 2m 넘으면 과태료

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등록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다. /홍성군 제공

[홍성] 홍성군은 반려견 목줄 길이를 반드시 2m 이내로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아파트 등 건물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홍성군은 시행에 들어간 강화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사용해야 하며 2m 이내의 길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2m이상의 줄을 사용하더라도 반려견과의 간격이 2m를 넘지 않으면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며 위반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화됐지만 고양이를 등록은 보호자의 선택사항이며



여의도 3.5배 산단 개발하는 아산시, 50만명 넘어설까

산단 조성·도시개발 활발

아산시 인구 6년 뒤 50만 예상

[아산]아산시에 인구가 꾸준히 유입돼 현재 35만 명 시 인구가 6년 뒤 50만 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현재 아산에서는 디스플레이·자동차·반도체 관련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된다.

아산에 공사 중인 산단은 7개, 계획

중인 산단은 5개 등 12개 산단 면적은 1027만㎡, 여의도 면적의 3.5배다. 지난 5년간 삼성 등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유치한 투자액만 15조 563억 원에 이른다.

산단 조성과 함께 주택 건설도 활발하다. 현재 아산시에서는 LH 2개 지구, 아산시 6개 지구, 민간 10개 지구 등 18개 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탕정2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1012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들 도시개발사업지를 중심으로 아산에서는 2028년까지 63개 단지, 10만 6100가구의 아파트 신축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

여기에 수도권전철 1호선과 외곽순환도로 완성을 통한 간선도로망 확충, 아산~천안 고속도로,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 올해 말 경부고속도로 아산IC 개통 등으로 교통망도 확장되고 있다.

/도정신문팀



아산 인주산업단지 항공사진

천안 도심에 100만 그루 ‘바람길 숲’ 만든다

200억 원 들여 13개 구간에

97만 그루 조성 열섬 완화

[천안]천안시가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에 국도비 포함 20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도심생활권 내 13개 구간, 녹지 5만5863㎡ 면적에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한다.

도시 바람길 숲은 도시 외곽의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시켜 뜨거운 공

기를 배출해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 현상 완화를 촉진하기 위한 숲 조성 사업이다.

이곳에는 교목·소나무·느티나무 등 25종 3734주와 관목 사철나무 등 18종 40만1094주, 지피 맥문동 등 23종 96만 7560본을 심는다.

기존 차도변에 조성된 폭 1m 이내 협소한 띠녹지도 1.5~2m로 폭을 넓히고 상층목 밑에 작은 식물을 심는 하부식재를 보완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



천안 물충새공원 도시 바람길숲 조감도

행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도정신문팀

미주 한인이민사박물관, 유관순상 협약

천안시·충남북부상의 공동

[천안]천안시와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은 지난 2월 14일 ‘유관순상’ 수상자 지원사업 공동 이행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미 뉴욕주 의회가 상·하원 만장일치로 3.1운동의 날 기념 결

의안을 채택하고, 나소카운티가 유관순 열사의 자유·평등·인권 정신을 기리는 유관순상을 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는 대로 2020년 이후 방문하지 못한 유관순상 수상자도 함께 천안으로 초청해 역사문화 탐방을 하기로 했다.

/천안시 제공

삼교호 아산호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3년간 51억 투입해

커뮤니티, 생태체험장 건립

[아산]아산시 삼교호와 아산호 유역 어촌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및 생태체험장 신축 등을 담은 어촌뉴딜300사업이 추진된다.

첫 삽을 뜬 아산시 어촌뉴딜 사업은 3년간 51억 원을 투입해 커뮤니티센터 및 생태체험장 건립과 선착장, 부유식 작업장, 인공산란장 등을 조성하는 지역 밀착형 사업이다.

사업 대상 지역인 아산호와 삼교호

는 50여 년 전 바다를 막는 간척 사업으로 담수화된 후 내수면어업의 자원으로 자리해 영인, 인주, 선장 등 3개 내수면어업계 어민 74명이 어업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내외적인 어업소득 감소와 자원감소에 따른 어민 물고기 남획 등으로 어족자원이 감소하고 경쟁력이 하락하며 어업인 감소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실정.

이에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어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 제공



아산시가 어촌뉴딜300(내륙어촌재생) 사업 기공식을 갖고 있다.

천북굴, 친환경 자동화로 명품화한다

양식시설 현대화 나서

굴구이 굴찜 입맛도 명품

[보령]천북굴 명품화를 위한 양식장의 친환경, 자동화가 추진된다.

보령시에 따르면 2020년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천북면 앞 해상에 10ha 면적으로 조성된 굴 양식장에 개체 굴 43만 마리와 수하연(굴 키우는 줄) 1만 2000연 등을 설치했다.

지난해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개체 굴 종자 52만 마리와 친환경 부표 750개 등 굴 채취 자동화 장비를 지원했다. 보령시는 올해에도 1억 6000



보령시는 올해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천북굴 명품화에 나선다.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친환경 시설과 자동화 장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천북굴은 줄을 매달아 바다에서 양식하는 방법인 수하식으로 키우며 천

수만의 영양염류를 충분히 섭취해 알이 꽉 차고 단맛을 내는 특성을 가졌다. 천북굴단지는 굴구이, 굴찜 등을 맛볼 수 있다.

/보령시 제공

공주 무령왕 동상 회전식 보러 오세요

갱위강국 선포 위업

[공주]무령왕 동상의 회전식이 매주 주말 상설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으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무령왕 동상의 회전식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무령왕 동상이 위치한 공산성 앞 연문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동상이 서쪽을 바라볼 때는 그곳에 무령왕릉이 있고, 북쪽을 바라볼 때는 고구려를 여러 번 격파하고 갱위강국을 선포한 대왕의 위업이, 남쪽을 바라볼 때는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군주의 의미를 담고 있다.

회전식은 무령왕 동상 건립지 내에 집결한 후 사전 안내를 듣고 여행연습

을 한 뒤 오후 2시 정각에 진행되며 소요 시간은 30분 내외이다.

공주시는 4월부터 수문병 근무교대식에 맞춰 회전식을 다양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은 공주시 문화재과(☎041-840-2626)로 하면 된다.

/공주시 제공

서산 우량 씨감자 108톤 충남 농업인에게 공급

조직배양 기술 활용 보급

[서산]서산시는 충남형 씨감자 우량종자를 선별해 62톤의 씨감자를 도내 시군 희망 농업인에게 분양하고 있다.

공급 물량은 부석면 충남형 씨감자 전문단지에서 생산된 것이다.

시는 도와 협업해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5억 9000만 원을 들여, 도내 시군 농업인에게 씨감자를 공급해 오고 있다.

시와 도는 도내 시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정부 보급종보다 20% 싼 가격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지역 내 희망 농가에 서산형 씨감자 4t도 분양 공급한다.

서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조직배양 기술을 이용해 무병 서산형 씨감자 자체 생산체계를 구축했다.

서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충남의 안정적 고품질 우량 씨감자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전조기지 역할을 수행해 나



서산 우량 씨감자 분류 작업 현장

가겠다”고 말했다.

/서산시 제공

태안 화훼 ‘온라인 판매’로 판로 확보

로컬푸드 매장 등 납품

[태안]태안군이 코로나19로 위축된 화훼 소비촉진을 위해 온라인 판매에 나선다.

태안군 남면에 화훼농가에서는 장미 등 화훼의 온라인 판매에 나서며 입소문을 타고 있다.

태안의 한 꽃 농원에서는 온라인으로 하루 20~3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태안군은 로컬푸드 매장과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도 납품하는 등 판로 확대에 나서고 있다.

군은 “인터넷을 활용한 직거래 지원과 관련 교육 실시 등 농가소



온라인 판매에 나선 태안 화훼농가

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군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태안군 제공

멧돼지를 막아내 지킨 텃밭 농산물로 무인가게 운영

우리 마을의 기분 좋은 변화(8)

- 서천 마산면 벽오리 마을
야생동물로부터 텃밭 지키기

가구별 텃밭에 울타리 설치해
들짐승 막고 친환경 작물 보호
어르신 활력·소득↑ ‘일석이조’



친환경 농산물 지키는 울타리 ‘엄지척’ 서천 마산면 벽오리 마을 어르신이 앞마당 텃밭에 설치된 울타리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주민들은 야생동물들로부터 지켜낸 친환경 농산물을 마을 입구 무인가게에 내다 팔며 소일거리를 통한 삶의 활력 충전과 소득증대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서천] “시골 어르신들에게 집 앞 텃밭은 단순히 농산물을 키우고 팔아 소득을 만드는 공간이 아닌, 삶을 이어 나가기 위한 필수 공간입니다.”

충남 서천군 마산면 벽오리는 마을 뒤쪽으로 야트막한 월명산이 둘러싸고 있어 먹이를 찾는 들짐승들의 침범이 잦았다.

특히 멧돼지와 고라니 등이 애써 키운 발작물을 헤집어놔서 텃밭을 가꾸는 주민들의 노력이 헛수고가 돼버렸다.

문제 해결을 위해 폐망으로 일기설기 울타리를 세워봤지만, 야생동물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사회적기업인 서천마산협동조합은 마을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다. 작은 농촌에서 텃밭이 가지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천마산협동조합 박대수 이사장은

“시골에는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이분들이 고구마와 콩을 심고 소일거리를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인 바로 텃밭”이라며 “야생동물들이 축대밭을 만들어놓으면 작물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천마산협동조합은 지난해 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측에 ‘야생동물

로부터 친환경 농산물 지키기’ 의제를 의뢰했다.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4500만 원의 실행비를 지원받아 전체 17개 가구 가운데 농작물 피해가 심한 6개 가구 앞마당 밭에 우선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다.

집마다 앞마당에 튼튼한 울타리가 세워지자 주민들은 안전감을 느낄 수 있었다. 밭일을 하는 도중에도 야생조

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폐망 울타리와 달리 내구성이 뛰어나 번거롭게 고칠 일도 없었다. 유해조수로 인해 발생했던 피해도 90% 가까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해서 무사히 지켜낸 주민들의 친환경 농산물은 어르신들의 용돈 벌이 수단도 됐다.

이번 의제를 통해 보급받은 친환경 약제나 퇴비를 활용해 땅심을 높이고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했다.

마을 입구의 무인 가게에 내놓은 작물들은 인근 지역민과 외지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러고도 남은 농산물은 협동조합에 납품해 수익을 보전했다.

박 이사장은 “새로 설치한 울타리가 주민들에게 의지가 됐다”며 “오로지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어르신들이 삶을 꾸려나가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재현 scottju@korea.kr

청양군, ‘큰 글자’ 지방세 고지서 개발

주요 내용 글자 크기↑

고령 납세자 편의 증대

[청양] 충남 청양군이 고령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항목을 큰 글자로 바꾼 지방세 고지서 서식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고지서는 글자 크기가 작아 납부세액, 납부 기한, 납부 계좌 등 주요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 37%에 달하는 65세 이상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군은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내용을 중앙에 배치하고 활자를 확대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정기분 세목인 등록면허세(1

과세근거 지방세법 제124조~130조	지방세(세외수입) 카톡(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 041 - 940 - 0000	
납부장소 한국 은행, 우체국, 세아물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2022년 06월 자동차세	
가산금과 증가산금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납부의 가산금 지방세액의 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증가산금(지방세액의 0.75%이 추가됩니다).	납기내 금액	납기후 금액
	560,000 원	576,800 원
	2022-06-30까지	2022-07-31까지
귀하께서 납부한 지방세는 청양군 지역발전의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납부계좌	
	가상계좌 (농협) 790017-55-173363	

청양군이 고령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발한 ‘큰 글자’ 지방세 고지서

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고지서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 시행 예정인 지방세(세외수입)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 신청 안

내(전화번호), 지방세 사용처에 대한 안내 문구를 삽입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납세 편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청양군 제공

천안시 면접 정장 무료대여 확대

지점 추가로 접근성 높이고

여성 정장바지 등 품목 늘려

[천안] 충남 천안시는 면접 정장 대여 지원사업 ‘청년품격옷장’을 천안시 2030청년복지센터에서 개설했다.

올해 사업은 기존 1개 업체로 운영되던 대여사업을 올해는 동남·서북 각 1개 업체(슈트갤러리, 스피렌디노)로 운영해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대여품목도 구두를 비롯해 여성 이용자를 위한 정장바지를 추가해 이용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면접정장은 ▲천안 소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천안 소재 대학교 졸업

운영기간	2022.02.03~ 예산 소진시까지
대여업체	1) 슈트갤러리(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243 1층, 신부동) 2) 스피렌디노(천안시 불당 15길 7, 불당동)
지원자격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천안시 거주 18세 ~ 39세 청년 a. 천안 소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b. 천안 소재 대학교 졸업예정자 c. 천안 지역 내 1년이상 거주한 18~39세 취업준비생
접수방법	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 홈페이지 참조 www.ch2030youth.kr * 기타 문의: 041-900-2030

예정자 ▲천안 지역 내 1년 이상 거주한 18~39세 취업준비생이라면 1회 3박 4일간 최대 연 3회까지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신청은 천안시2030청년복지센터 누리집 ‘청년의 품격옷장’ 신청페이지에

접속해 설문을 작성하고 메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복지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41-900-2030)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시 제공

홍성군일본 오부市, 비대면 홍보 교류

상호 홈페이지에 소개 코너 신설

[홍성] 충남 홍성군은 일본 오부시와의 비대면 국제교류를 위해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상호 도시를 소개하는 페이

지를 개설했다.

이번 홈페이지 개설은 군민에게 우호도시 특산물·관광지 등 안내를 통해 코로나 종식 이후 민간교류 확대 차원에서 시작했다. 홍성군의 5품 3미 12

경을 비롯한 대표 관광지가 오부시 홈페이지에 소개됐고, 일본 오부시의 문화축제·관광명소가 군 홈페이지에 소개됐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 특산물 판로 확대와 인적 물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성군 제공

백제 불상에서 삶의 표정을 엿보다

내포문화숲길, 마음으로 걷다

-원효개달음길 5코스

‘백제의 미소’ 마애여래삼존상

고단한 표정의 미륵불 등

걷는 이의 삶과 영혼을 비춰

오늘 걸어갈 길은 내포문화숲길 원효개달음길 5코스로 용현계곡을 출발해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을 지나 보원사지를 거쳐 남연군묘에 다다르는 길입니다.

‘백제의 미소길’로 알려진, 내포문화숲길의 여러 코스 중 가장 유명한 코스입니다.

이 길에서는 ‘백제의 미소’를 비롯해 부처들의 다양한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얼굴은 코스 입구에 서 있는 ‘강댕이 미륵불’의 얼굴입니다. 이 미륵불의 얼굴에서 수행자의 모습을 느낍니다. 이끼가 끼고 풍파에 마모된 미륵불을 보고 있으면 마치 우리네 삶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강댕이 미륵불의 얼굴은 우리의 고단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수행자의 얼굴입니다.

두 번째 얼굴은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본존불의 얼굴, ‘백제의 미소’입니다. 둥글둥글한 얼굴형에서 풍기는 행복한 미소입니다. 이 얼굴은 우리에게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알려줍니다. 웃으세요, 행복해집니다. 삶의 고단함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다섯 번째 얼굴은 보원사지에서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있어야 했다’는 표현에서 눈치 채셨겠지만, 이 불상들은 모두 제 자리를 잃었습니다. 보원사지 입구에 있는 ‘보원사지 출토물’이라는 안내판 사진 속에 철조여래좌상과 철불좌상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철조여래좌상의 얼굴은 근엄해 보이는 둥근 얼굴로, 삶의 고단함을 벗어나 해탈한 얼굴입니다. 옆에 있는 철불좌상의 얼굴은 무엇인가 연쭙아 보입니다. 제 자리를 잃은 것에 대한 불만일까요?

얼굴은 인간의 영혼이나 인격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얼굴을 지니고 이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이 길은, ‘백제의 미소길’입니다.

/이경복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내포문화진흥센터장



원효개달음길 5코스에서 마주하는 ‘백제의 미소’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1908년	➤	1919년(12세)	➤	1921년(14세)	➤	1926년(19세)	➤	1928년(21세)	➤	1930년(23세)	➤	1931년(24세)	➤	1932년(25세)
충남 예산 덕산면 시랑리 출생		일제 식민지 교육에 반대하여 자퇴		스승 성주록 문하에서 학문		스승에게 매한이라는 아호를 받음		부흥원 세워 농촌부흥운동을 전개		‘장부출가생불환’ 글귀 남기고 망명		백범 선생 만나 독립운동 헌신 뜻 피력		4월 26일 한인애국단에 가입 4월 27일~4월 28일 홍커우공원 담사 4월 29일 상해 의거 성공 5월 25일 일제 군법회의서 사형 선고 12월 19일 십자가 형틀에 매여 총살형

윤봉길 의사 상해의거·순국 90주년

“대장부는 집을 나가 뜻을 이루기 전엔 돌아오지 않는다”

(장부출가생불환 丈夫出家生不還)

지금으로부터 90년 전, 중국 상해 홍커우공원에 일왕 히로히토의 생일과 상해 침공 전승을 축하하기 위해 일본군과 각국 외교사절 등 구름 같은 군중이 모였다. 오전 11시 50분쯤 일본국사인 기미가요가 울려 퍼질 때쯤 관중 가운데에서 한 청년이 수통으로 위장한 폭탄을 일본군 수뇌부가 모인 단상으로 투척했다. 청년의 손을 떠난 폭탄은 17m 떨어진 단상 위로 떨어져 굉음과 함께 폭발했다. 불과 25세의 나이에 일본제국주의를 상대로 전 세계에 한국의 존재와 독립의지를 알린 그의 이름은 윤우의(禹儀). 윤봉길이었다.

윤봉길 의사는 1908년 6월 21일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랑리에서 아버지 윤환과 어머니 김원상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명은 우의, 본길은 별명이었다. 12세가 되던 1919년 3.1 만세운동을 직접 목격하고는 일제의 식민지 교육을 거부하고 학교에서 자퇴했다.

이후 윤 의사는 그의 스승인 유학자 매곡 성주록의 오치서숙에서 사서삼경과 한시를 익혔다. 성주록 선생은 자신의 호인 매곡과 평소 윤봉길 의사가 존경하던 성삼문의 호 매죽헌을 따서 ‘매헌’이라는 호를 선물했다. 여기에는 ‘한겨울 추위 속에서 향기를 내뿜는 매화의 고고한 기품과 충의정신을 간직하라’는 뜻이 담겨있다.

윤봉길 의사는 19세 무렵 ‘민족의 무지는 나라를 잃게 만든다’라는 깨달음을 얻고 농민운동에 전념했다. 한글을 모르는 농민들을 위해 문맹퇴치운동을 벌였으며, 21세에는 마을 사람들과 부흥원을 건립,

야학당·월례강연회·독서회 등을 주도했다. 그는 농민들과 학예회를 열고 일제강점기 시대 상황을 풍자한 ‘토끼와 여우’ 공연을 열어 애국사상 고취와 지식 보급화에 앞장섰다.

1930년 윤 의사는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장부가 뜻을 품고 집을 떠나니 뜻을 이루지 않고는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이란 글귀를 남기고 조국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 고국을 떠났다. 단동을 거쳐 칭다오에 도착한 그는 1932년 4월 20일 상하이일일신문을 통해 일왕 히로히토의 생일 겸 상해 침공 전승 축하식이 그로부터 9일 뒤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백범 김구를 찾아가 의거를 제안했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홍커우공원에서 식민 통치의 수뇌부들이 모인 단상 위로 수통형 폭탄을 던져 일본 제국주의에 치명타를 입혔다. 상해 의거로 총사령관 육군대장이 사망하고 해군총사령관 해군중장과 제9사단장 육군중장이 중상을 입는 등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한국의 독립 의지를 보여줬다. 세계 각국에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 한민족의 독립운동 사실을 알렸다.

윤 의사는 곧바로 붙잡혀 1932년 12월 19일 오전 7시 27분 현재 일본의 가나자와시 교외인 이시카와현 육군공병작업장에서 총살당하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장부출가생불환’을 외쳤던 그의 유해는 민족이 독립의 뜻을 이룬지 1년여 만인 1946년 5월 15일 이봉창·백정기 의사의 유해와 함께 한반도로 돌아왔으며 서울 효창공원 삼의사묘역에 안장됐다.

윤 의사의 상해 의거는 한민족의 독립 의지를 일깨우는 역사적 화석이 됐고,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을 비롯한 한국독립운동의 활성화와 정의와 자유, 평화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세계만방에 전명하는 계기가 됐다.

/주재현 scottju@korea.kr



한인애국당 입단 선서 사진. 윤 의사의 가슴에 붙은 선서문에는 ‘나는 적성(침된 정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국의 수괴를 도륙하기로 맹서하나이다’라고 적혀있다.

식민지 교육에 항거해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 자퇴
민족 무지와 일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몽운동 벌여
상해 의거로 일본군에 치명타 입히고 독립 의지 천명

의거 직전 동생에게 보낸 편지

국가지정문화재 제568-3호 지정

상해 의거 직전 윤봉길 의사가 자신의 결심을 담았던 편지가 최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됐다.

예산 윤봉길의사기념관이 소장한 보물 제568-3호는 윤 의사의 친필 편지 봉투 3점으로 동생 윤남의에게 보낸 편지다. 봉투 주소를 통해 상하이 의거를 결심했을 당시의 거주지를 알 수 있다는 점이 뜻깊은 유물이다.

1932년 7월 일본 내무성 보안과가 작성한 ‘상해에서의 윤봉길 폭탄사건 전말’, ‘통신 관계’에 따르면 윤 의사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상해사건의 실황과 ‘살아서 이대로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윤의사의 셋째 동생인 윤남의 씨의 아들이자 소장자인 윤주 선생은 “주소가 ‘상해 법계하비로’로 쓰여진 봉투의 편지 내용은 남지 않았다. 의거를 암시하는 대목들로 인해 읽고 바로 소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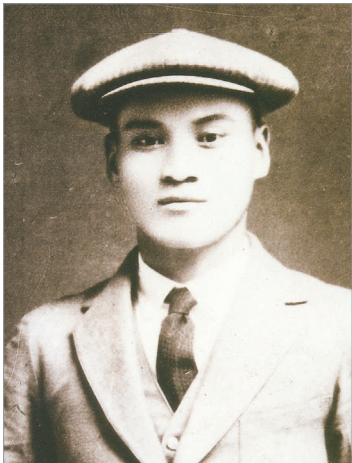
나머지 2점은 ‘사랑스러운 영석아’와 ‘사랑이 넘치는 영석아’ 편지 봉투로 내용과 함께 윤봉길 의사가기념관에 전시돼 있다.



보물로 추가 지정된 윤봉길 의사 친필 편지봉투(편지 없는 봉투 상해법계하비로)



예산 덕산면 시랑리 윤 의사의 생가 광현당. 윤 의사는 훗날 이 집의 사방으로 넷들이 흐르는 모습이 섬과 같다고 하여 ‘도중도(한반도 중심에 있는 섬)’라고 불렀다.



윤 의사가 청도 체류 당시 찍은 사진

■ 독립운동 의사·열사 무엇이 다를까?

	의사	열사
뜻	무력으로 항거하다가 의롭게 죽은 사람	맨몸으로 저항하며 자신의 지조를 나타낸 사람
대표 인물	윤봉길, 안중근, 이봉창	유관순, 민영환, 이준, 황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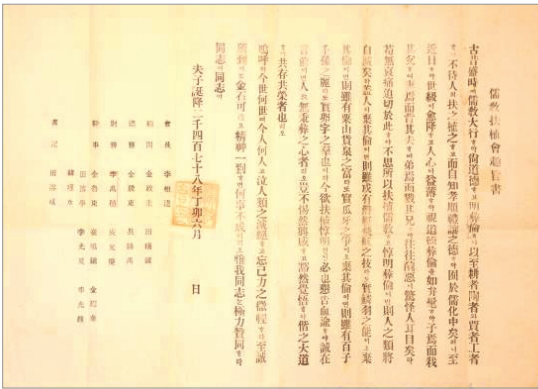
출처 국가보훈처

민족운동사 담긴 홍성 향토유산 신규지정

홍성 민족운동 기록된 유교부식회 문서
조선 과거시험 답안지 임유 시권 지정

[홍성]충남 홍성군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유교 부식회 관련 문서’와 ‘임유 시권’을 신규 지정했다.
‘유교부식회 관련 문서’는 총 4건 7점으로, 일제강점기 홍성 유학자의 민족운동을 보여주는 자료다.
독립운동가 지산 김복한 선생의 장자 김은동과 그의 문인들이 민족자주와 유교 진흥을 위해 유교부식회를 설립하고, 1920년대 후반~1930년

대 초반 홍성을 중심으로 기관지 「인도」, 취지문·선전 전단 등을 발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다.
‘임유 시권’은 1665년(현종 6)에 청난공신 임득의 장군의 증손자인 임유가 운양행궁에서 열린 특별과거시험에서 작성한 답안지다.
임유가 ‘사람의 힘으로 조화를 빼앗을 수 있는가를 논하리’는 시험문제에 답안을 작성해 합격했다가 다시 취소됐다는 관련 내용이 ‘승정원 일기’ 등에 기록돼 당시 사건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현재까지 홍성군 향토문화유산은 양곡사·창주사·권빙묘갈·한산이씨족보 총 4호가 지정됐으



홍성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신규 지정된 유교부식회 취지문
며, 이번 지정으로 총 6호로 늘어났다.
/홍성군 제공

태안 ‘팜카밀레’ 웰니스 관광지 재지정

3만㎡ 면적 꽃과 허브 등 생태 정원
아로마테라피·스트레스 관리 등 운영

[태안]충남 태안군 남면의 수목원 ‘팜카밀레’가 한국관광공사 웰니스 관광지로 재지정됐다.
한국관광공사는 ‘2022~2023 추천 웰니스 관광지 재지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말 현장평가에서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지역연계 협력계획, 향후 운영계획 등을 평가하고 재지정을 최종 통보했다.
2004년 개장한 팜카밀레 수목원은 약 3만㎡의

면적에 허브정원·힐링체험장·펜션 등을 갖추고 있으며 꽃과 허브로 채워진 생태기반 정원으로 연중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곳이다.
특히 허브티를 기반으로 ▲아로마테라피와 족욕 ▲정원치유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인근 백사장항과 안면암, 꽃지해수욕장,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 관광지와의 가까워 태안 대표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23년 12월까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홍보마케팅 및 여행상품 개발 등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며 “다양한 관광지가 있는 태안군이 앞으로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관광지



태안의 허브 기반 생태 정원 팜카밀레
원 개발 및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태안군 제공

“아이 가르치다 영어 9단 댔어요”

‘주부에서 영어교육가로’ 박수경 작가
자녀와 함께하는 공부 중요성 알려

[당진]“아이와 함께 공부하면 학교나 학원에서 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아이 영어 영재로 키우는 법’ (미다스북스·320쪽)의 저자 박수경 작가(사진)는 이렇게 말했다.
해외 거주 경험도 없고 영어전공자도 아닌 그녀는 ‘아이가 어떻게 쉽고 재밌게 영어를 배울 수 있을까?’란 고민을 하다가 함께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박 작가는 방통대 영어영문학과 과정을 이수하며 아침, 간식시간, 잠들기 전 틈틈이 아이에게 영어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림책을 읽어주는가 하면 영화를 활용한 교육 등 기초부터 차근차근 밝아나갔다.
선생이자 친구로서 함께한 교육은 아이와 자신을 각각 영어 영재와 도사로 만들었다. 2018년 국회의원실에서 개최된 영어스피치대회에서 그녀는 딸과 함께 최고상을 받았다.
박 작가는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공부방을 운영하며 자신의 영어 학습 철학을 다른



‘우리 아이 영어 영재로 키우는 법’ 저자 박수경 작가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있다.
그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초보자의 심정을 이해한다”며 “영어공부가 절실한 이들을 찾아 강연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도정신문팀

충청인의 詩香

너에게 묻고 싶다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길목
들꽃으로
넌 그렇게 서 있었다

바람결에 날리는
풀내음이라고
넌 그렇게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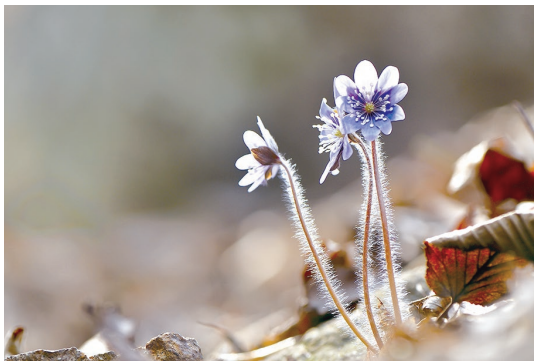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서늘히 울음 우는 이 가슴

두려움이 커질수록
덜그러니
둥지 하나 자리하고

품을 수도
밀어낼 수도 없는
이 풀내음
너에게 묻고 싶다



장 미 숙 시인
·시집 『사랑의 미학』 외
·(사)한국문협 아산지부장, 온양문화원 부원장



청양 출신 배우 권병길 회고록 출간 50년 연기 인생 진솔한 이야기 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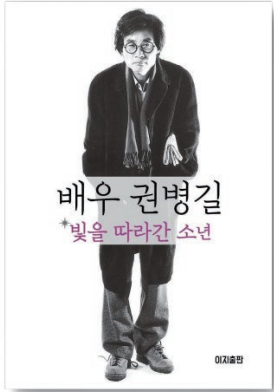
[청양]우리나라 연극계 대표 원로배우 권병길(76) 씨가 54년 연기 인생을 담은 회고록 ‘배우 권병길, 빛을 따라 간 소년’ (이지출판·232쪽)을 발간했다.

회고록에는 권 배우의 인생 흔적과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또 극장가에 입단하고 활동하게 된 동기부터 인생의 시발점이 된 연기활동을 회상하는 내용이 글로 자세히 표현됐다.

특히 본문 45쪽에는 5남매 중 맏형인 고 권병홍(청양문화원 초대원장) 선생의 생전 모습과 느낌을 이야기하면서 애뜻한 형제애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책에는 유년시절 자신의 모습부터 다채로운 추억을 쌓아가는 모습을 담았고, 배우로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준 지인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했다.

권 배우는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가 고향으로, 1968년 차범석 작 ‘불모지’에 출연하면서 연기자로 길을 걷게 됐다.

이관용/청양신문사



공주 나태주 골목길에서 詩의 행간을 거닐다

윤성희의 만감萬感

- 공주 나태주 골목길

앞만 보며 달린 삶 접어두고

골목길서 시의 행간 거닐며

마음속 희망의 불씨 지피다

공주는 시를 품은 도시다. 나태주의 시를 품었고 시가 있는 ‘나태주 골목길’을 품었다. 공주는 또한 ‘나태주 풀꽃 문학관’이라는 시의 사원을 품었다. 사람들은 그 교당에 가서 나태주의 시를 경배하고 시가 있는 골목길을 순례한다.

순례란 신을 닮기가 불가능할 때, 신이 걸어간 길을 걸으며 그 발길을 추체험하는 일이다. 공주는 시의 순례자를 위해 시인이 걸어온 시의 생애를 작은 골목 공간에 압축해 놓았다. 몇 줄의 문장 안에 응축된 긴 사연, 시인이 통찰한 의미들을 음미해 보라는 뜻이다.

시는 올림과 여운이 내장된 문학의 정수다. 그래서 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골목길을 거닐 듯이 시의 행간을 천천히 거닐어 보아야 한다. 발걸음의 리듬을 따라 거닐면서 시의 리듬을 몸으로 감각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도 여백이 생길 것이다.

이동의 수단인 발은 자동차 액셀레이터를 밟는 데 더 많이 쓰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발을 본래의 기능으로 되돌려 놓을 때, 걷기는 직선과 속도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각성의 거울이 된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도 빠르게, 앞만 보면서 살아오지 않았던가. 골목길에서는 직선과 속도 따위가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낙타는 걸어가면서 반추하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하는데, 골목길을 걷다 보면 우리도 낙타가 된다. 길모퉁이에 있는 팬지꽃을 들여다보다가 마음에 머물렀던 기억 하나를 꺼내 보기도 하고 빨간 기와집 우편함을 보면서 언젠가 거기 꽃혀 있었을 분홍빛 연서를 상상해 보기도 한다. ‘문득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가/ 나를 놀라게 하’고 ‘혼자 나는 비둘기 한 마



공주 나태주 골목길

리가/나의 발길을 멈추게 하’ (나태주, 「골목길」)는 마음의 진동도 골목길을 걸을 때 얻는 가외의 소득이다.

나태주 골목길 초입에 있는 골목 정원에 앉아 생각해 본다. 오늘날 시가 읽히지 않는 것은 우리 시대의 정신의 어둠을 보여주는 징표다. 그러나 이곳 골목이 시의 독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어둠을 파고들 희망의 불이 아직 남아있다는 또 하나의 징표다.

/윤성희 문학평론가

경찰관의 발 빠른 대처로 아기 살렸다

칠갑지구대 박상근·염지성 경장
순찰차로 호흡곤란 아기 긴급 이송

[청양]충남 청양경찰서 칠갑지구대 박상근·염지성 경장이 빠른 판단과 조치로 아기의 생명을 구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지난 2월 1일 오후 5시쯤 한 남성이 긴급히 지구대로 들어왔다. 이 남성은 생후 24개월 된 아기의 아버지로, 차량 뒷좌석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경련과 호흡곤란을 겪는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박상근·염지성 경장은 아기 입속에 거품이 형성되고 호흡이 거의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119구조대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곧바로 순찰차



왼쪽부터 청양경찰서 박상근·염지성 경장

로 청양의료원까지 1분 만에 후송했고 의료진의 응급조치를 통해 귀한 생명을 살렸다.

박 경장은 “의료원으로 향하던 1분이 1시간 같았고, 아기가 무사해 감사

하다”고 말했다. 아기 아버지 A씨는 “가까운 곳에 경찰관이 없었더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도움을 준 경찰관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관용/청양신문사

“주부·공방작가·요리사 전부 제 본업이에요”

SNS 인플루언서 유나미 씨
코바늘 수제품·요리법 공유로
“엄마도 할 수 있다” 보여줘

[당진]코바늘로 만든 제품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나미다락방’의 유나미(사진) 씨. 경력단절녀였던 유나미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인플루언서(SNS에서 유행을 이끄는 사람)다.

유 씨가 코바늘 아이템을 시작한 계기는 첫째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식이 었다. 잊지 못할 선물을 주고 싶어 직접 만든 코바늘 키링을 주었더니 아이

가 매우 기뻐했고, 이 모습을 본 후 아이들이 좋아하는 키링을 판매하게 됐다.

그녀는 코바늘 작품 외에도 SNS를 통한 음식 요리법 공유를 통해 스타트업제품체험단 ‘요즘세끼’ 우수리뷰어, ‘홈런치’ 서포터즈 우수활동자, ‘만개의 레시피 셰프상’ 선정 등 N잡러(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유나미 씨는 “주부라는 본업을 버리지 않으면서 나의 가치를 찾고 싶었고, 엄마도 할 수 있다는 노력과 도전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윤성/당진신문



유나미 씨는 코바늘로 만든 수제품을 팔고 SNS에 요리법을 공유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찰진 매력’ 예산 국수 한 그릇 맛보세유”

예산전통국수 김성칠 대표

“겉 반죽 치대며 쫄깃함 더해”

[예산]충남의 예산국수를 ‘후루룩’ 소리와 함께 빨아올리면 탄력 있는 식감이 일품이다. 적당히 간이 된 면발은 육수와 어우러져 깊은 맛을 더한다. 차진 면을 찬물에 헹궈 고추장 양념장을 넣어 비벼도 맛갈스럽다. ‘예산국수를 한 번 먹어본 사람은 다른 국수를 못 먹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예산국수의 시작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30여 년 전 상설시장에 ‘예산전통국수’를 차린 김성칠(71) 대

표는 “부모님이 나 태어나기 전부터 방앗간하며 국수가게를 같이 했슈. 그게 ‘쌍송국수’ 예유. 쌍송국수는 형님이 맡았고 누님은 ‘버들국수’를 차렸어유. 나는 여기서 다른 가게를 하다 국수집을 냈구유”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예산국수의 가장 큰 특징인 쫄깃함을 살리는 비결은 롤러로 납작하게 눌러 뺀 반죽을 겹친 상태로 한 번 더 기계에 넣어 누르는 것이다. 반죽을 치밀수록 탄력이 더해지는 원리다. 특히 바람으로 자연건조하기 때문에 더 차지다고 한다.

오늘 저녁,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쫄깃한 예산국수와 함께 추억을



예산전통국수에서 면발을 뽑고 있다.

소환해보자.

김수로/무한정보신문

제1회 충남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한국수어 도민 인식 높여

‘제1회 충남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이

2월 18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에서 열렸다. 언어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한국수어의 날은 매년 2월 3일이며, 지난해부터 기념식을 시작했고 도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기념식이 개최됐다.

한국농아인협회 충청남도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국수어에 대한 도민 인식을 고취하고 한국수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자 마련됐다.

/문화정책과 041-635-2411

성평등 언어 이렇게 사용하세요

제공/충남여성가족연구원

성차별 단어	성평등 단어	제안 이유
미혼(未婚)	비혼(非婚)	결혼을 못 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로 사용
유모차(乳母車)	유아차(乳兒車)	“아빠는 유모차를 끌수 없나요?” 유아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유아차’로 사용

● 슬로건 : 단어 하나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행동을 바꿀 수 있다.

김용남 서예가 당진미협 첫 여성 지부장 추대

“공공미술분야 일자리 만들겠다”

[당진]한국미술협회 당진지부(이하 당진미협) 12대 지부장으로 김용남 서예가가 추대됐다.

김 지부장은 당진미협 첫 여성 지부장이라는 점과 서예가 출신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기록을 세우게 됐다. 그녀는 당진시서예협회 고문 및 당진문화원 이사 등을 맡고 있다. 또한 다원갤러리를 운영하며 지역 작가들

비롯한 외부 작가들의 전시회를 열어 시민들의 문화향유에 앞장서고 있다.

김용남 지부장은 “공공미술 활동을 통한 예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집중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공공미술 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찾아가는 미술 활동 추진, 자문위원회 활성화 및 기획위원회 구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진아/당진신문



김용남 신임지부장은 공공미술 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현순애 낭송가, 애지신인문학상 당선

시인 등단, ‘구멍 외 4편’ 등 호평

[계룡]전국시낭송대회 대상 수상자인 현순애(사진) 시낭송가가 신인문학상에 당선되며 시인으로 등단해 화제다.

계간 시 전문지 ‘애지(愛知)’ 문학상 운영위원회는 2022년 애지 신인문학상(시부문) 봄 공모전에 현순애 시낭송가의 ‘구멍 외 4편’의 시가 신인문학상 당선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순애 시인은 “코로나 한파로 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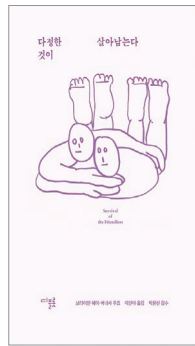
바람 불어 아득하기만 한 봄, 냉이가 입맛 지친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뿌리 캐어 두려움과 설렘 동봉하여 띄운 연서에 ‘애지’에서 뜨겁게 화답해 주셨습니다. 좋은 시로 보답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전철세/계룡일보사

다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사서들의 서재



《브라이언 헤어베서 우즈디플롯2022》

다윈의 진화론 하면 생각나는 단어 중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다. 약육강식과 흔히 함께 사용되는 이 표현은 사실 다윈이 만든 표현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윈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도태된다는 의미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이 책은 적자생존이라는 용어에 대한 오해를 푸는 데서 시작해 인간이 어떻게 ‘적(합한)자’가 됐는지에 대한 답을 다정함 또는

친화력에서 나온 협력으로 본다. 각 개체가 아닌 ‘종’의 차원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는 것이 유리하며, 협력을 위해서는 서로에게 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들이 연구한 대상 중 하나는 우리에게 가장 친밀한 동물인 개였다. 늑대는 어떻게 해서 인간과 함께 살게 됐으며, 야생에 그대로 남은 늑대와 달리 널리 번성하게 됐는지. 개와 다른 동물들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인지. 그 열쇠는 ‘친밀함’을 열쇠로 하는 자기가축화 가설에 있다.

다만 이 책은 단순하게 진화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다정함’이 가진 이면과 그것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례를 언급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화두를 던져준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많은 적을 정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친구를 만들었느냐로 평가해야 함을. 그것이 우리 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숨은 비결이다.’

/김희영 충남도서관
정보서비스과 사서

이름없는 충남의 독립운동을 기억하라

내포칼럼



김 상 기
충남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나라 잃은 위기의 순간에서

충남 전역서 진행된 의병투쟁

3.1운동 땀 핏물 들고 시위

김좌진·이동녕·윤봉길·유관순

걸출한 독립운동가 배출해

총 1천여 명 건국훈장 추서

공적 더 밝혀 독립정신 본받아야

독립운동은 19세기 말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여 의병이 일어난 이후 19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단절됨이 없이 전개되었다.

일본제국주의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한민족은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반만 년 역사를 가진 민족이 하루아침에 망할 수 없다는 신념이 강했다. 일부 친일분자들이 일제에 협력한 경우도 있었지만, 민족구성원 대부분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용납하지 않았다.

나아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회복하고, 일제에게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완전히 되찾아 민족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을 당면과제로 여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족적 노력이 바로 독립운동이었다. 한민족은 치열한 독립운동의 결과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충남인들은 한말, 일제강점기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충남인의 의병투쟁은 충남의 서부지역을 비롯하여 천안, 공주권 등 전 지역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도시를 중심으로는 국채보상운동을 비롯한 애국계몽운동을 펼쳐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일제강점기 충남인들은 만주지역으로 망명하거나 국내에 남아 독립운동을 지속하였다. 국내에서는 풍기광복단과 광복회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광복회 충남지부의 활동은 특히 두

드러진다. 충남에서의 3.1운동은 광범하게 전개되었다. 일어나지 않은 시, 군이 없으며, 면 단위 또는 리 단위에 서도 봉기하였다. 특히 충남지역의 3.1운동은 핏물 봉화 시위를 벌인 것으로 유명하다. 1920년대 이후에도 학생운동, 농민노동운동, 청년운동, 종교운동 등을 전개하여 일제의 식민정책에 저항하였다.

충남 출신 독립운동가들은 만주지역에서의 무장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김좌진은 이들 충남 지역 출신들을 지도하며 만주지역에서의 독립전쟁을 이끌어갔다.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이동녕 같은 인물이 있으며, 상해 홍구공원 의거를 성공리에 수행한 윤봉길이 예산 출신이다. 이들 외에도 홍성 출신의 한용운과 천안 아우내장터에서 만세운동을 펼치다가 붙잡혀 순국한 유관순 등 걸출한 독립운동가들이 충남인들이다. 이들 외에도 1천여 명에 달하는 충남인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공적이 인정되어 정부로부터 건국훈장을 추서받았다. 물론 이들 외에도 아직 정부로부터 공적이 인정되지 못한 수많은 인물들이 있다. 이들의 활동상이 제대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충남인들의 위상이 자리 잡아 갈 것이며, 충남인의 전통과 정신이 되살아날 것이다.



▶ 충남 내포신도시 독립운동가 거리에 조성된 충남 독립운동가 5인의 조형물. 왼쪽부터 유관순 열사, 김좌진 장군, 이동녕 선생, 윤봉길 의사, 한용운 선생

전환의 시대 지방자치분권이 최고의 백신

정책에 민심을 더하다

효율적인 코로나 대응 위해

지방자치와 개인이 주도하는

‘나노 단위’ 방역 설계해야

‘팬데믹이 키운 권위주의’

최근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기구(IDEA)가 발표한 2021 민주주의 현황 보고서를 한마디로 압축한 표현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등 6곳은 권위주의 정권으로 이동했고, 중국과 브라질 등은 전체주의적 기질이 더욱 거세졌다.

코로나가 시작된 후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인의 자유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정부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논리에 모두 동참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은 시민들이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관리하는 규율이 됐다.

그러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초기에 최고의 성과를 낸 관리시스템의 변화가 요구된다. 모든 관리시스템을 국가에 위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지방자치분권의 참여 없는 중앙 관리 시스템으로 현재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원적 고민이다.

이외에도 기후변화와 국제패권 변동, 디지털 기술 혁신 등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눈 앞에 펼쳐진다. 세계는 다차원적 관계로 연결돼 있다. 한 곳의 위기가 모두의 위기로 삼시간에 퍼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유연하고 기민한 변화만이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계를 대처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됐다.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기업이다. 자동차기업들은 내연기관 분야를 과감히 포기하며 전기자동차로의 혁신에 힘쓰고 있다. 유례없는 규모의 M&A(기업인수합병)가 일어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와 협력하고 있다. 특히 책임과 권한을 나노 단위로 세분화하며 효율적인 조직체계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정치와 사회 시스템도 기업의 빠른 변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정치·사회적 책임과 권한을 잘게 쪼개야 한다. 지역과 삶의 현장에서 시민이 주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

치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이 혁신의 방향은 지방자치와 분권이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 방역체계를 개인 중심으로 개편했다. 국가 아니면 개인의 양극단만 오가는 방역체계 속에 지방 정부의 자치와 분권이 약화했다. 우리의 삶은 하나로 확일화될 수 없다. 위기와 변혁의 시대일수록 지역과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책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자기 공간 내에서 어떤 모습으로 방역체계를 설계할지 결정해야 한다.

시민의 자기 책임성과 권리 의식을 키우기 위한 이야기를 공론화해야 한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강령이자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우리는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코로나 시대에서 던져야 할 가장 시급한 질문이다.



김 재 응
공주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충청남도정책자문위원

이정록 시인의 서랍

실소

웃기는 놈이 되고 싶었다. 당연히 말이 많아졌다. 힘은 대부분 입으로 빠져나갔다. 왜 안 웃지? 웃음의 코드를 뽑은 채 버튼을 눌렀나? 남은 힘은 통박 재느라 다 써버렸다. 석회 포대를 풀어놓은 우물처럼 머릿속 산소가 사라졌다. 이야기를 너무 압축했나? 어지러웠다. 개그맨이 되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여겼지만, 그런 날은 늦은 시간까지 유머사전을 들춰봤다. 그러다가 시인이 되었다. 웃기는 시를 쓰고 싶었다. 감동이 아니라면 재미라도 있어야지, 내시 창작법이 전부였다. 고요가 사라졌다. 발광하려고 발광하는 때 많았다. 친구를 좋아한 게 아니라 친구를 웃기고 싶었다. 잘 웃어주는 게 우정이라고 믿었다. 엄숙하게 사는

게 두려웠다. 불안을 부풀리는 기도가 싫었다. 시끄러운 내면을 활기라고 믿었다. 술을 좋아한 게 아니라 취기에 기대어 웃어젖히는 게 좋았다. 혼자 밥 먹는 게 싫었다. 혼자 걷는 게 싫었다. 시끄럽고 번잡한 곳에서 시를 쓰고, 동인들과 합평하는 걸 좋아했다. 이제 쉼 넘어, 쓸쓸함이란 호사가 찾아왔다. 빈 술잔의 고요를 즐기는 요즈음, 나를 들여다보며 혼자 웃는다. 혼자 웃는 놈이 되었다. 아, 나는 나를 크게 이루었구나. 나는 진정 나머지 웃기는 놈이 되었다. 드디어 웃긴 놈이 되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들의 목록』 창비

하루라도 글을 쓰지 않으면 작가의 손가락엔 가시가 돋는다. 밤송이 심장과 가시나무 발가락이 된다. 햇바닥에 고슴도치가 놓고 머릿속에 산미치광이가 뛰어다닌다. 엉덩이에 가시방석이 등글게 터를 잡는다. 그런데 오래 쓰지 않고 견딘 뭉툰한 가시펜이 좋은 글을 낳는다. 진짜가 나타나면, 그간 매일 쓴 시답잖은 글을 버린다. 드디어 아예 글을 쓰지 않아도 될 것처럼 홀가분해진다. 그래서 작가의 발밑에는 제 가시에 찢긴 꽃

잎이 흥건하다. 내가 목련을 사랑하는 이유다. 아침에 일어나 바닥에 떨어진 하얀 목련꽃을 보면, 밤새워 글을 쓰다가 파지만 남긴 실패한 글쟁이 같다.



이 정 록 시인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예산국수의 맛

생생현장리포트



김 수 로
무한정보 기자

흰면발 대나무에 걸어 자연 건조

현대화에도 식감 탄력 그대로

예산상설시장 국수가게에서 취재를 마치고 국수를 만 원어치 사왔다. 어머니가 물을 팔팔 끓여 면을 삶은 뒤 잘 익었는지 먹어보곤 한 말. “이거 왜 이렇게 맛있니?”

예산국수는 다른 일반 국수보다 쫄깃하고 적당히 간이 돼 있어 육수와 어우러져 깊은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예산상설시장과 역전 근처에 가면 흰 면발을 대나무에 나란히 걸어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손으로 직접 뽑아 햇살과 바람에 말리는 국수다. 지금은 매연과 미세먼지 때문에 대부분 실내 건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탄력 있는 식감은 그대로다.

예산국수는 상설시장과 역사를 같이 한다. 예산은 충남 내륙지역과 인천·서울에서 오는 물자가 만나 일찍부터 장이 발달했던 지역으로, 각지에서 모여든 보부상과 농산물을 팔러 온 농민들은 국수로 한 끼를 해결하곤 했다.

1950년대 들어 근처 방앗간에서 국수를 뽑아 식당 등에 판매하기 시작했고, 많은 이에게 사랑받으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30년이 넘도록 한 자리를 지켜온 ‘예산전통국수’ 김성철 대표의 말을 빌리면 작업은 ‘반은 기계, 반은 손’으로 한다. 옛날에는 손으로 직접 돌려 면을 뽑는 국수틀을 사용했지만, 모터를 달며 자동화가 이뤄졌다. 일손을 덜었다고는 하나 반죽을 준비하는 것부터 건조, 포장 등은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

국수는 우리네 삶 속에 친숙하게 녹아있는 음식이다. 내게도 그렇다. 유독 국수를 좋아했던 아버지 덕에 어렸을 때부터 자주 먹었다. 그만큼 국수에 얽힌 추억도 많다.

들깨는 더위가 무르익을 즈음인 6~7월에 많이 심는다. 밭에서 땀 흘려 일을 하다 보면 더위에 입맛마저 잃게 되는데, 그때 달걀을 풀어넣은 잔치국수에 양념간장을 쳐 후루룩 들어먹면 고단함이 가시는 듯했다. 겨울밤엔 영화를 한 편 틀어놓고 김장김치 국물과 멸치육수를 섞은 김치말이국수를 야식으로 먹곤 했다. 외국에 있을 적 가족을 떠올리며 해먹은 음식도 국수였다.

어머니가 삶아준 국수에 당근과 애호박, 김 가루를 올려 기사에 함께 실을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 군침이 돌아 서둘러 촬영을 마친 뒤 식탁에 앉아 배추김치 한 접을 올려 후루룩 빨아올렸다. 그 맛이 어땠을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제334회 임시회 의원 주요 활동

충남도·교육청 재정통제권 강화나선다



김명선 의장

도의회는 제2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16명을 위촉했다.

제2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도의원 4명, 예산·재정 전문가 12명 총 16명으로 구성됐으며 2024년 2월 10일까지 활동한다.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맞춰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 예·결산 검토·심의 ▲주요 사업 분석 자문 ▲의안 비용추계 자문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등 의회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김명선 의장은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결산 심의 등 도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계룡·천안·아산·당진 초·중교 신설’ 축하



김대영 의원

김대영 의원(계룡)은 “초·중등학교의 신설 확정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동안 천안 성성2중, 아산 온샘중·산동초, 당진 해성초, 계룡 대실초등학교 신설은 당위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소 불합리한 학교 신설 규정에 묶여 확정이 미뤄져, 인근 학생들의 통학 거리, 과대·과밀 학급 문제 등 다양한 교육여건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작년 9월 5분 발언을 통해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했던 계룡 대실지구의 초등학교 신설이 드디어 확정됐다”며 “아산·천안·당진·계룡의 모든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 상황 시 필수노동자 보호해야



이선영 의원

이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재난상황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지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는 한편,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수분야 방역강화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지원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 지원 사업 등을 추진토록 했다. 효율적 실태조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법인,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반출문화재 현황조사·환수 총력



김연 의원

충청남도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은 지난달 2021년 활동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2기 실태조사단 단장인 김연 의원(천안7)은 “일본으로 반출된 서산부석사불상의 경우 대마도 관음사의 재판 참여 의사가 전해지면서 마무리될 조짐이 보이고, 서산보원사지 철조여래좌상 봉안활동도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천안 성거산 천흥사명 동종과 보협인석탑을 천안시립박물관으로 안치하고자 하는 활동의 진행과 반출 국보 문화재 현황조사와 환수 대책이 모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도민과 문화유산 회복의 필요성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자 보호해야

‘탄소중립 전환’ 노동자 지원방안 논의

안장현 의원(아산4)은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자 지원방안 마련’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안장현 의원이 좌장을 맡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 울산대학교 조형제 교수, (사)지역경제와 고용 김기덕 이사가 발제를 맡았다.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자 지원 정책 시 ▲전환 관련 재교육 및 취창업 등 취창업 지원이 73.7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환 관련 교육훈련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73.3점으로 나타난 만큼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을 유지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와 지역이 참여



안장현 의원

하는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 구축과 산업전환에 대비한 노동자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장현 의원은 “지난해 보령 화력발전소 1·2호기가 문을 닫은 보령시의 경우 인구 10만 명이 무너졌다”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지난해 11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노정협약’이 된 상황인 만큼 충남이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의회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강 회복·농어민 상생’ 해수유통 촉구



전익현 의원

도의회는 금강하구역 자연성회복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금강해수유통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전익현 의원(서천1)은 “금강하굿둑이 금강 흐름을 단절시킨 부작용으로 수질 악화와 녹조 발생, 생태계 단절, 퇴적토 증가 등 환경문제가 발생했다”며 “해수유통을 통한 자연성 회복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현 배수갑만을 활용한 실증실험을 통해 해수유통을 추진해야 한다”며 “금강 취·양수장 이전 계획 등 중·장기적 생태복원 사업의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반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바른 국어사용으로 도정 이해도 제고한다



홍기후 의원

홍기후 의원(당진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조례명을 ‘충청남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로 변경했다.

또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설치 ▲지역어 보전 ▲주요 정책 사업 명칭 우리말 사용 등 도민의 도정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도민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문화유산 보전 ▲언어 사용이 어려운 도민·외국인 국어사용 불편 해소 ▲일제 잔재용어 순화 등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

홍 의원은 “도민들이 쉽게 도정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농업인 권익 신장 대책 절실

농촌 가부장제 해소 방안 논의

도의회는 지난 2월 22일 ‘충남 여성농업인 권익신장 및 지위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고, 태희원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성평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쉼터’를 주제로 여성농업인 정책지원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태희원 책임연구원은 “여성농업인 정책목구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50.9%)이 가족 내 직업인으로서 본인의 지위를 ‘보수를 받지 않는 가족종사자’로 응답했으며, 14.4%만 농촌사회가



방한일 의원

성평등한 편이라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촌의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농업인의 낮은 지위 해소, 열악한 삶의 질 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도입과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조치, 여성농업인에게 친화적인 영농환경 조성에도 필요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방한일 의원은 “여성농업인의 중요성 인식 및 권익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과 노력이 필수적인 만큼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실질적, 종합적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촉구”

시도의회의장協, 도의회 건의안 의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22년 제2차 임시회에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 김명선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은 일제 국권 침탈에 항거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서훈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국권 수호를 위해 일어난 농민 중심의 항일무장투쟁이지만 단 1명도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했다.

의원시론

충남형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이 게 양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50% 육박한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자

종합·체계적인 안전대책 수립 절실

지난해 충남의 교통사고 건수는 9404건, 사망자 수 308명, 부상자 수는 1만 4087명이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14.1명으로 전국 평균 6.5명의 2배를 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남(16.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충남도 교통사고 치사율(사고건수 대비 사망율)은 3.3%로 전국 평균 1.5%의 2배다. 주요 특징은 과속 성향이 높고, 65세 이상 고령자(운전자·보행자) 인구분포 대비 높은 사망률, 농촌지역 화물차·이륜차·농기계 사고가 잦다는 점이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따라 지난해 교

통사고 사망자 308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 사망자가 149명(48.4%)으로 50%에 육박한다. 또 아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도내 교통안전의 취약점을 여실히 보여준 대표 사례이기에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정책 확대가 중요하다.

그동안의 교통안전 대책을 무조건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충남도는 교통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충남도의회도 교통안전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도 2018년 이후 감소세다. 하지만 우리의 교통안전 대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속에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든다.

우리에게 맞는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안전속도 5030,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확대, 화물차·농기계 사고 감소 등 대책의 지속 추진, 선진교통안전 문화와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확대, 모든 공공기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 대책 수립·시행이 절실하다.

‘충남형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방안 모색

불균형 해소·농어민기본권 해법 논의

충남도의회가 농어촌 소멸우려 지역의 주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성공적인 도입 방안 모색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영권 의원(아산1) 요청으로 농어촌 균형발전을 위한 충남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방안을 찾기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영권 의원이 좌장을 맡고, 충남연구원 박경철 박사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박경철 박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방법 및 국내 사례를 발표하면서 “소멸하는 농어촌을 지키고 농어촌 주민의 경제사회적 기본권을 보장



김영권 의원

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더욱 두텁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와 유관기관 및 농어민단체, 지역주민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효율적 도입을 위한 의견을 제안·공유했다.

김영권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소규모 중소농가 증가로 지역간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기본소득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우선 인구소멸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실질적 데이터를 산출해 향후 충남도내 전면 시행 및 국가 시책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 청년 비전 선포

2030년까지 66개 사업 2.1조 투입
MZ세대 마음 잡는 청년 비전 올인



주거

- 충남꿈비채 추가 공급 주거 안정
- 주택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 자부담 금리 0.5%→0.3% 완화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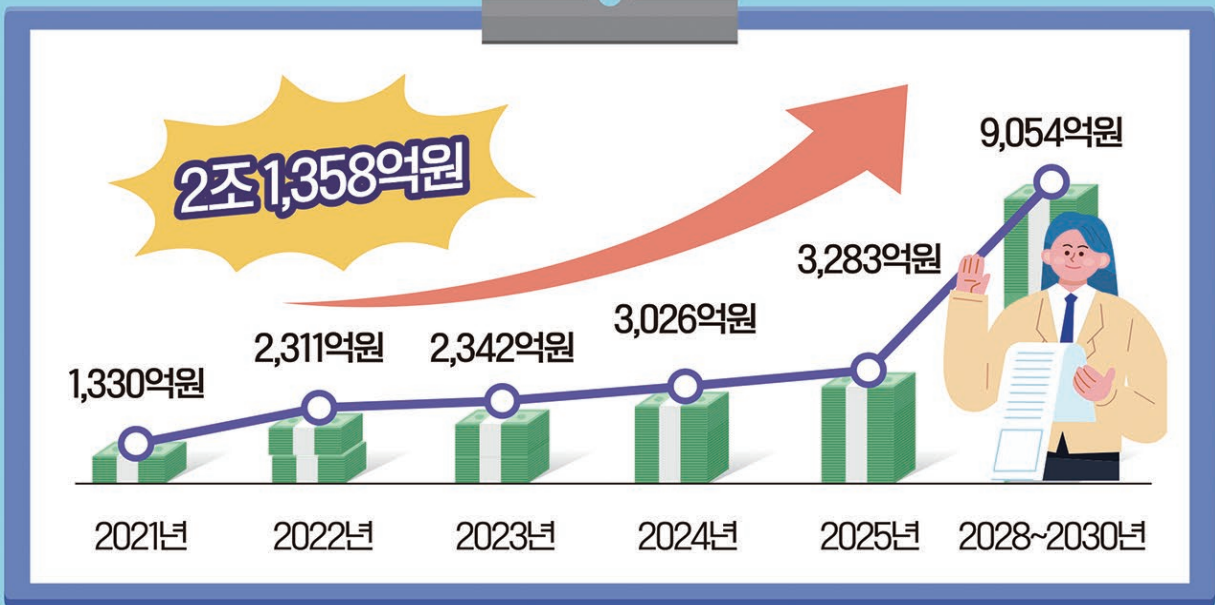
- 창업·기술개발 실현 공모사업
- 팀별 최대 3000만 원 지원
- 2235명 맞춤형 일자리 제공



교육

- 충남도립대 무상교육 실현
- 취업준비 지원에 연 30만 원

청년정책 투자 계획(2021~2030년) ++



청년에 살으리랏다!

청년 일자리 · 청년주택 늘려 기회 넘치게!

충남도가 일자리 확충과 주택공급 확대와 교육 기회 보장을 통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말 '충남 청년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5대 분야, 66개 사업에 총 2조 135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충남 청년 취업 분석보고서를 보면 충남지역 대졸자의 수도권 취업 비율이 64.4%인데 비해 도내 취업 비율은 2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유출 원인은 일자리가 34%로 가장 높았고, 주택 27%, 가족 문제 25% 등 순이었으며, 이에 따라 도는 청년 취업과 정주라는 충남만의 생태계 구축에 집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청년주택을 늘려 더 많은 청년들이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 충남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도정신문팀



01 청년 공모사업

- 도내 거주 19~39세 청년 단체(3인 이상)
- 팀별 최대 3000만 원 무상 지원
- 청년 창업·기술 개발 아이디어 실현 지원



0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 도내 2235명 청년 일자리
- 기존 57개+신규 38개 사업
- 채용 시 인건비, 창업지원경비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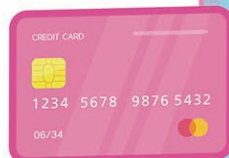


2030 MZ세대를 위한 2.1조 규모 충남청년정책 시리즈



03 청년 희망카드

- 도내 거주 23~25세 청년
- 1인 당 연 30만 원 지원
- 구직, 문화, 건강 등 비용 지원



04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 추가 공급(4,000호)

- 도내 청년, 신혼부부 대상
- 월 임대료 15만 원(공간 36~59㎡)
- 입주 후 1명 출산 임대료 50% 지원
- 입주 후 2명 출산 임대료 100% 지원

